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교회 멤버십 - Church Membership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나머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인들,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즉 지식을 가진 자와 명철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들 형제들과 귀족들에게 결합하여... 느헤미야 10:28, 29.

Pastor Walter "Chick" McGill - 월터 "치크" 맥길 목사 설교
David P. Aguilar- 데이비드 피. 에글러 편집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교회 멤버쉽: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차례

머리말

1장: 모든 진리의 회복

2장: 가족

3장: 기념이 되는 돌들

4장: 증인들의 서명

5장: 두 증서들

6장: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

7장: 두 번째 이브

부록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교회 멤버 쉽: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머리말.

마태 복음에 기록된 구주의 설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상보훈”이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7,13,14 .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위기가 왔다. 적이 조용히 교회들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하늘 보좌에 직접 경배 드리는 자들의 활기 있는 에너지를 고갈케 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업에서 그것에 관하여 경고하였다; 신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든지 설교하였다. 여전히 그들의 교훈이 열렬하게 나갔으나 말씀을 공언하고 따르는 무리들 대부분에 의하여 무시당하였으므로 성경 말씀이 참으로 성취되었다; 그들이 하늘의 약속들을 공언하였다.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5. 이 적의 이름이 타협이다.

위에 말씀을 듣는 대 다수 사람들이 즉시 “숨겨진 죄들”의 실상들을 갖기 시작하고, 언젠가 행한 육신적인 방종들을 빨리 뉘우친다. - 여전히 타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그 사람은 더 더욱 교활하게 되고, 더 더욱 사악한 자가 된다. 유다가 공헌하여 거룩한 성경말씀들로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3.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짜 교리들과 잘못 해석된 복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어 들어왔다. - 좁은 길로부터 영혼들을 유혹하였다. 신약 성경 저술가들이 이러한 도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으며, 또 우리가 그들의 간청들과, 그들의 경고들과, 또 그들이 명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기록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감한 대로 “배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3.) 교황정치 제도 교회가 왔으므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오랫동안 보존한 원칙들을 포기한 이유는 - 박해를 두려워한 것이든지 또는 사형 집행자의 칼날을 두려워 한 것이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온화한 구세주의 성품 위에 오점을 내어 기만하였으므로, 그 오점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다. 종교 재판들, 십자군과 또 다른 “거룩한” 전쟁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 세기를 통과하여 계속 우리 지구상에 정신 문명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개혁에 역사는 영혼들에 원수의 입으로부터 초기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명적인 노력을 한 기록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오할 만한 일을 단행한 것을 보고 용감한 사람들이 반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성경 말씀들과 일치하지 않는 관습들을 벗어 던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 분의 소망들과 의도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그 가공할 만하고 무한한 값을 치루신 그 분이 우리의 대화에 주제가 되어야 하고 또 세대들이 끊임없는 예배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였으며, 또 그들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들이 되어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 굳세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결과가 되었다.) 엄청난 빛을 쬐으며; 구주께서 보내신 그들의 증거에 대하여 우리가 빛을 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지불하였는가? 우리가 홀륭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어울리는 생애를 살기 위하여 그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하였다. 그의 기록에서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 될 것이라고 하였다. (빌립보서 2:2.) 끝으로 그의 기록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야쉬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고린도전서 1:10.)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들 중에 분열이 있다. 같은 영으로 인도 받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싸움이 있으므로, 여전히 사도가 의혹을 가지고 질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0:13.) 그 대답은 아니요.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분의 몸도 나누어지지 않았다. “진리”가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옳으며, 또 인간의 해석들, 또 인간의 지혜는, 많은 효력을 똑 같이 나타내는 결과가 없으며,

여전히 기독교의 형식과 반대가 된다.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야케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고린도전서 14:33.)

Yes.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멤버가 있다. (로마서 12:4.)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들 자신들을 교사에 스타일로, 어떤 자들은 마귀와 친밀하게 타협한 친구로, 이 성경말씀을 방해하여 결코 저술가에 의도가 아닌 것을 적용하였고, 또 진리의 영에 의한 영감을 받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마무리해서 말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교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메시아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주장하고, 그분과 한 몸으로 주장하는 모든 자들과 종파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들이 서로 멤버인가? 그들 모두가 같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 모두가 한 교리들로서 “한 분 주요, 한 믿음, 한 침례”를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4:5.)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구원에 뜻과, 내세에 있을 구속에 보증에 대하여 같은 점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종파들이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단 하나에 가르침이라도 공통점이 있는가? - 하나도 없다. - 십자가에 의미조차도 공통점이 없다. - 여전히 뻔뻔스러운 이 균중들에 어떤 목소리들이 선언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이 “계획하신 모든 구성요소다!”고 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은가? 성경의 가르침들이 성화의 길은, 좁고 엄격하다고 한다. 메시아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언제든지 만나기를 기꺼이 하신다. - 그러나 그분은 진리에 타협을 꺼리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그들 생애에 길로 주신 윤곽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여전히 그들을 꾸짖으신다. 그분이 인류에 허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계획적인 죄들을 표시하여 기록하며, 또한 그분에 기록 책 금빛 페이지에 기록하신다. 이것 둘 다 참되고, 둘 다 그분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둘 다 사랑이다. 사랑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중지 될 것이다.

우리는 연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한 값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을 옳은 길로 읽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 우리의 특권으로써 - 진리를 주의 깊이 찾기를 노력하고 또한 진리대로 따라야 한다. 이것이 교회 멤버십에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23.) 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조소하는가? 왜 진화론자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 경멸하는가? 왜 아주 많은 명목상 기독교인 교회들이 잠자고 있으며, 일찍이 고백한 죄들과 영원히 버렸어야 할 죄들과 함께 고심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구주께서 오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과 같이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 (요한복음 10:3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어 그분을 증거 하도록 하신 것을 아직도 세상은 모른다.

많은 교회들이 없다. 다만 한 교회가 있다; 신약성경에서, 집회들을 적용하여 “교회들”이라는 단어로, 단호히 사용한 것은, 자급자족하는 종교 단체들이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가르침에 의한 복음의 “편견”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언어로 말하므로 그러한 종류의 혼동에 대하여 성경에 한 언어가 있다. 그것을 바벨론으로 일컫는다. 마지막 때, “혼동”한 영으로 대중에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 모두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할 것이다. 암흑의 왕국에 원칙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아는 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계시록 16:29.)

그러나 가능한 연합이 있다. “영” 안에 있는 자들이, 유일한 그들의 특성으로 친교에 연합이 가능한 것이다. 그들이 육신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종교적인 불화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를 모든 것들에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에 빛에서 움츠러들거나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13.) 우리가 참으로 “옳은 방향”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진술을 만들어서 주장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므로 우리가 교회를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인식들을 가장 잘 조절하여 적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지구상에 지당하고 합법적인 한 교회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주께서 믿는 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바로 그 “영”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에 관하여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성령을 참으로 모독하고 거절하는 것이며 - 또한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은 “위험한 멸망의 길”에 서 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하늘은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양의 생명 책에 기록된 자들 만이다.” (계시록 21:27.)

만일 어떤 상태가 참되지 않으면, 거짓이다. 만일 상황이 성경말씀에 가르침들대로 따르지 않고, 참된 성경말씀의 가르침들이 아니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 우리가 더 이상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더 이상 경건에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자가만족 할 수도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것이 괜찮은 체하고 계속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안식일이 주중에 일곱째 날이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복

받는 날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부터 제거되었으며, 갈바리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므로, 다른 날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 사람에게 가르침은 참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은 거짓이다. -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근거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야웨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사물들 그대로를 안다. 마음속 깊은 어느 곳에 가장 둔감한 혼수 상태에서 개심하였을지라도, 만일 그 안에서 성령에 감동이 있으면, 그는 사물들 그대로를 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21.)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실재적인 진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구하면, 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는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메시야의 명령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교회가 지상에 있다. “의를 달성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채립하실 때, 인자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에서 새 마음과 바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 각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 창조 때처럼 빛이 어둠으로부터 분리 될 때가 되었고, 그 다음, 바로 그렇게 된 다음에, 생명이 시작된다. (창세기 1:4.) 이것들을 알고 있는 교회가 있으며, 또 멤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서로 합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보호한 교회가 있으며 이 교회는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유 의지를 잃지 않고 연합하여 행하는 교회이다.

독자들이여, 만일 그대가 이러한 부류에 연합 하고자 굶주리고 목마른 느낌이 있고 이러한 종류의 믿음에 확실한 언약에 목마르고 굶주렸으면, 이 책이 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산상보훈에서 설교하신 야시와의 말씀, 그분 입술에서 떨어진 가장 귀중한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한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오직 이 믿음은, 그대에게 아무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2001년 창조 SDA 교회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칙 목사가 7번 연속 설교한 것이다. 내가 이것들 한마디 한마디를 고스란히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하였으며 가능하면 언제든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문맥을 바꾸었으며, 새로운 통찰력을 첨가하였고,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가르침을 총괄하였으며, 또 지지하는 다른 성경절들을 포함하였다. 설교한 언어들에 항상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세련되게 옮기지 못하였고, 또 때때로 문장의 구성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 설교자의 의향에 의하여 대화체로 배열하는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야의 “영”에 의하여, 기별이 완전하며, 또 나의 믿음으로 내 자신보다 지식이 무진장하신 분, 위대하신 분에 의하여 인도함 받으면서, 겸허한 노력을 하였다. 내가 가진 재능에 능력보다도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가 되도록 모으시는데 더욱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술가도 아니고 참된 달필가도 아니지만, 이 책을 이 세상에 내 놓는 것은, 여전히 마음속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로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초청은 이 사업에서 정통한 국면을 다소간 더 부가 기록하였으므로, 독자들이 계속, 이 맑은 샘물을 마시기 바란다.

다음과 같은 방책을 독자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돈하였다.

1. 킹 제임스에 성경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출처를 기록하였고, 예외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변경된, 예를 들면;

- o.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되시고 그리고 “주”는 구약 성경에서 (시편 68:4.) 읽음과 같이 “야”시다.
- o. “예수”는 “야쉬와”시고 “하나님”은 “야”시며 또 “주”는 신약 성경구절에 있는 주제에 구절들로 좌우되어 “야” 또는 “야쉬와”시다.

2.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언급할 때 (그, 그분, 그분의, 그것, 등등) 성경 구절들에서 모두 대문자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특정한 키 용어들로써 교회를 “여자”와 “생명 책”을 언급할 때 대문자로 사용하였다.

3. 교회 단어를 대문자로 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소문자로 쓸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 내가 소문자로 “church”를 사용할 때는 조직적인 타이틀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자들을 언급한 것이다. 내가 “Church”에 방식인 대문자로 사용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써, 믿는 자들의 단체이며, 현재 (또는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통찰력을 사용) 머리인 야쉬와께 충실한 자들이다.

4. 설교자가 한 견해로부터 다른 견해로 이동할 때는 어떤 때는 문단이 절단되어 [...]와 같이 된 것은 주제의 내용을 이동한 것이다.

5. 칩 목사가 부가한 간결한 성경 구절들은 [사각진 괄호]를 사용하였으며; 그가 성경구절들을 더 길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성경 구절은 “인용문” 밖에 기록하였고, 이것은 문단의 구절들을 포함하여 넣은 표시들이다.

6. 항상 성경 구절들을 완전하게 인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설교자가 유일하게 인용한 부분들은 (괄호) 안에서 기록하여 언급하였고 또는 그것 자체의 인용문 이전에 언급하였다. 그러한 기록들은 명백하게 성경 구절들을 읽어 파악함을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탐구자들이 그들 성경에서 원문을 보도록 격려하여 완전한 설명이 되도록 삽입하였으며, 이 연구와 토론으로부터 최대한도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7. 내가 설명한 것들을, 보통 편집상의 삽입을 {곱슬 괄호}로 더하였다.

8. 부가적인 연구 주제에 키는 {1} 넘버들로 나타내었고, 또 각 장의 끝에서 대응하는 보충 설명을 부록에 포함된 기록들을 만들어 참고로 하였다.

이 책을 읽고 검토하는 독자들에게 야(Yah)의 축복을 빕니다.

데이비드 에글러
David P. Aguilar.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1장: 모든 진리의 회복 - 2001년 3월 10일.

켄사스 주에서 몇 년 전에 바로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을 기억한다. 교회 멤버십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그들 가운데서 다소간 언쟁이 일어났다. 나는 어떤 응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이른바 어떤 응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므로 야의 보좌 앞에서, 기도로 간청하였다. 그 날 밤에 그분이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 다음 날 저녁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 논쟁하였던 자들이 만족할 수 있었다. 그 연구는 언쟁을 그치게 하였고, 또 그분께서 때를 맞추어서 개재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야께 감사 찬송 드렸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한 개념을 반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최근, 금년 2월 23일에, 테너시 주에서 창조 SDA 교회를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정식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교회 멤버에 대한 주제가 다시 화제가 되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야께 질문하였고, 그 분이 그것에 대한 사물들을 밝혀 주기 시작하였으며, 또 그분이 이전에 주신 것에 더 보태어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나는 그대와 인터넷에서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나누어주기를 원하며, 야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들은 교회 배경이 없는 자도 있고, 아주 극소수가 마술을 믿었던 자가 있다. 우리가 아주 많은 다른 배경들로부터 왔다... 나는 남쪽 지역 침례교에서 자랐고 또 내가 확실한 기만과 오해를 하였던 것은 안식일, 죽은 자의 상태, 지옥 불, 아버지와 아들의 품성;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세월을 통하여 내가 연구한 결과, 야께서 그러한 속임수로부터 나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대들 대부분도, 역시 그대가 가진 그대의 생애에 일정한 영역 안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 있다. 그대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더 새롭고 또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받아야 한다: 그대가 행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 우리에게 “새롭게 할 때”를 말한다. 거룩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3:19-21.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야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야쉬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 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야쉬와께서 아직도 살아 계셨을 때 그들을 시나각 밖으로 불러내시고 분리하여 그들을 가르쳐서, 사도교회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후에 그분의 죽음과 장사지남이 있었고 또 부활 후에 사도 교회가 계속되었다. 물론, 얼마동안은 어느 정도 유대교에 영향이 있었지만, 그들은 순수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의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속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 믿음을 통한 은혜였다, 에베소서 2:8절과 9절을 적절하게 인용한다.

에베소서 2:8,9: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야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이, 사도교회에서 균형을 이루었고, 또 그들의 생애에서 야의 뜻을 옳게 이해하였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고, 또 그들이 교회에 더하여 진 것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대가 교회 역사를 더듬어보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단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심었고, 또 차츰 차츰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것은 죄 된 사람이 나타나고, 배도 하는 일이 먼저 있기 전에는 “그 날” 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지 않을 것이다. AD. 538년에 교황 정치가 아주 잘 조직된 것과,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잘 창설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때 사도 교회의 많은 순수한 교리들이 차차 사라졌다.

12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통하여, 교황 정치가 지배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마르틴 루터, 잔 웨슬리, 그리고 많은 대단한 다른 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과 야의 거룩한 것들이 버려짐을 당하였다. 개혁자들 앞에 온 상황은, 교황정치 체도에 설립과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들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것임을 발견하였다. 그것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정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항거하였다. 결국 우리가 분리하였다. - 개혁자들이 스스로 분리 하거나, 또는 로마 카톨릭 단체로부터 강제로 분리 당하였고, 또 그들이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종파들이 되어 흩어져 갔다: 루터교들, 감리교들, 재 침례교파들, 왈텐스인들과 같다. 그리고 다른 자들이 계속 그 길로 갔다.

마침내 18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은 이 나라 미국에서 큰 일깨움이 있었고, 그것이 큰 종교적인 일깨움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1830년부터 1831년까지였다. 그것이 위대한 재림 운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는 성경말씀과, 예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적한 것을 본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하였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인 집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에 시작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교리로 부흥이 시작되었어야 한다. 사실 그분이 친히 그분의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교리가 세상 곳곳에 전하여져서 모든 기독교 종파들에 의하여 열심히 받아 들여졌다. 그것이 결국 지금 알려진 SDA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에 대한 의혹과 질문이 있을 것이다. “회복 되어야 할 이 때,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가 되었는데, 무엇이 회복되었으며, 또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완료되었는가?” 더할 나위 없이 진리는 항상 성경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므로 회복되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분명한 진리가 회복되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들을 탐구한 노력으로 인하여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내가 이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SDA 교회가 더 이상 새로운 진리들을 탐구하지 않고 끝내었으므로, 새로운 빛에 문이 닫혔고, 그 개혁이 끝났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개혁이 계속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개혁이, 창조 SDA 교회를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함께 친교하지 않은 다른 개혁자들이 어디든지 있다.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로 볼 수 있다. 우리들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볼 수 있으며, 우리를 마지막으로 개혁하는 한 지파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한다.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우리가 알기에, 계통을 통한 회복으로써, 위대한 재림 운동을 통과하고, SDA 교회를 통과하여 왔으나, SDA 교회가 개혁을 중지하였을 때, 그곳으로부터 SDA 교회 지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넘버 1.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들, 그리고 신격에 대한 진리이다. 삼위일체가 있는가? 삼위일체가 진리인가? 위대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중심적인 교리”가 삼위일체인데 그것이 진리인가? 우리가 아니다.고 말한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1} 성경이 중요시한 이름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본다: 잠언 30:4.

만일 삼위일체가 참되면, 성령도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잠언에서 우리가 본다. 잠언 30:4.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더할 나위없이, 새롭게 할 때가 된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열렬한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분의 이름이 “야”(Yah)이다. 어떤 자들은 그분을 일컬어 야웨(Yahweh), 어떤 자들은 야후바(Yahovah), 야바(Yaveh), 야후아(Yahuah),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이 분명히 한 것은 그분 이름이 “야 Yah” 시다. {시편 68:4절이 이것을 지적하였고, 또 아버지를 인정하는 충족한 이름의 첫째 부분으로 논증하였다.}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가 알고 있는 창조주를 “할렐루-야”로 말하는 것을 알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우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그분들의 적절한 이름들을 말하기를 원할 것이다.

실례를 들어서, 신약 성경 계시록 3:12절을 본다. 여기에서 구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또는 나의 아버지]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아버지] 이름과 내 [아버지] 도성의 이름, 즉 내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죄를 이긴 자들 위에 세 가지 이름들이 기록 될 것이다: 구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도시에 이름, 즉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야시와 그분 자신의 이름이다. 성령은 이름이 없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나 삼위일체-반대론에 대한 교리들을 설교하지 않을 것이지만, 삼위일체-반대론이 재림교회 초기부터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다시 왔으므로, 또 이것이 진리의 기둥으로 회복되었다.

지금 또 다른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다니엘 7:25절에서 -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캐톨릭 교황의 권력을 말하면서,

기록하기를 “그가 (적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박해)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캐톨릭 교황 정치가 1200년 동안 지배한 예언의 해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이 말하기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는 것은, 야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야쉬와를 대항하는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거나 박해할 것이고,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생각할 것이다. 지금 그가 때와 법들을 변경하였다면, 그 의미는 어떤 때와 법들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때들과 법들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레위기 23장 -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읽지 않지만, 그대 자신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 - 레위기 23장, 전 장에서, 야께서 명하신 때들과 거룩한 시기들을 그대가 발견할 것이다. 그러한 **시기들이 거룩한 집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야께서 따로 정하셨으므로**, 비록 로마 캐톨릭 조직이 그것들을 변경하였을지라도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야의 백성들로부터 회복되었다. 골로새서 2:16절에서 일년 중에 절기들과 매 새달에 절기들, 그리고 매 주 안식일에 관하여 그대가 읽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야의 백성들이 회복하였다. 그것들이 거룩한 절기들이다.

신약성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많은 실례들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절기들을 지켰으며, 또 종교적인 역사에 전문어들이, 년 중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킨 것을 아주 쉽게 실증하였다. 나이슨 회의 이전에 초기 교회 주교 폴리크레이쓰가 간단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포함한다. 이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3세기 후에 일어났으며, 타협하는 지도자들이 유월절 절기를(누룩 없는 빵)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날의 축제일, 이스터 썬데이로 (Easter Sunday) 옮기기를 피하였다:

“우리는 그 날들을 신중하게 더하거나 빼 것 없이 우리의 본분으로 지킨다. 주께서 오시는 날 아시아에서 죽은 위대한 빛의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분이 하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성도들을 찾아 낼 것이다. 빌립은 12 사도들 중 하나로써, 하이라폴리스에서 그들 생애에 마지막까지 결혼하지 않은 채 남아있던 그의 두 딸들과 함께 잠들었으며, 동시에 그의 다른 딸이 성령 안에서 살았고 또 에베소에서 잠들었다. 또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요한이, 교회의 희생 재물로써 제사장의 대사제 옷을 입었고, 교사였으며, 순교자였다; 그도 역시 에베소에서 잠들었다. 그 다음 서머나에 폴리감이, 교회 주교로써 순교 당하였고; 또 테레시스도 이움니아에서 교회 주교로써 순교하여, 역시 서머나에서 잠들었다.

라오디시아에서 잠든, 사가리스가 교회 주교로써 순교 당한 것을 내가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은혜 받은 페피리우스, 그리고 멜리토, 이들은 성령 안에서 전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사디스에서 잠든 그는 그가 죽음에서 일어날 때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모든 자들이 복음에 따라서 그 달 14일 니산월에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으며, 이는 복음 안에서 조화일치를 이루었고, 믿음의 법칙에서 최소 한도 빛나가지 않고 따른 것이다. 나도 역시 최후까지 절기들을 지켰으며, 폴리크레투스, 그들 모두와 가장 작은 자들과, 나의 가족이 전해진 전례를 따라서 행하고, 나와 함께 한 멤버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정해진 관례를 따랐다; 그들이 7명 교회 주교들이었고, 또 내가 8번째였으며, 또 나의 가족들이 항상 누룩을 버린 그 날을 지켰다. 나도 그렇게 하였다. 나의 친구들이여, 주님 사업에 65년간 봉사한 후에, 모든 세상 도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담화하였으며, 또 모든 거룩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였고, 나는 험박을 겁내지 않았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교회역사, Eusebius, pp. 171,172]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이름들을 회복하였고, 우리가 거룩한 시기들을 회복하였다. 법들은 어떠한가? 어떤 거룩한 법들이 버려짐을 당하였는가? 십계명들이 로마 캐톨릭 조직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 또 위대한 재림 운동이 경과하는 중에,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 안에서 적당한 곳에 다시 놓여졌고, 또 계명을 거역하여 우상들을 만들고 또 그것들에게 경배하던 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있어야 할 곳에 되돌려 놓여졌다.

건강 법칙들, 정결한 것과 부정한 법칙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정결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피하여야 하는가? 레위기 11:2절에서 그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법을 어기고 피를 먹는 것은 어떤가?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이 피투성이 스테이크를 먹고, 피투성이 햄버거를 먹는 것을 아는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먹는다. - 성경이 그것을 책망한다. 그리고 창세기 9:3,4.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음식)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과 더불어, 즉 거기에 있는 피채 먹지 말찌니라.”

그것이 최초로 시작이었다. 야게서 그들에게 피를 먹는 것을 금하였다; 그들은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말아야 했다. 그것을 사도행전 15:20,29절에서 다시 언급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피어서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지나간 것이다.고 한다. 구약 성경에 법칙들이 지나가 버렸다면, 사도행전 15:20절을 본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20절에서 말하기를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음식)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

지금 내가 21절로 돌아간다. 20절에서 말한 것이 새로 개심한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므로, 한층 더하여 다음 21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

바뀌 말하면 새로 개심한 자들이, 새 이방인들이며 믿음 안으로 들어 왔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따라야 했으며 그들이 안식일에 시나각에서 모세의 기록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근거로 그들 위에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이방인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였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조금씩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옳은 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은 것은,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시나각에서 모세가 기록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아주 초기 사도 교회였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해한 것은 어떤 음식들은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다. 아직도 피가 들어있는 어떤 고기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코쉬어”로 처리한 고기가 있지만, 코쉬어로 처리한 후에 고기는 대부분 고기 먹는 자들이 아마 즐겨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대체로 그것이 아무 맛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코쉬어 고기를 결코 먹어 본적이 없다.

우리가 회복한 다른 건강 법칙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 법칙들이 회복되기 전에, 또 다른 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영적인 선물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영적인 선물들을 완전히 내 던지고 말하기를, “게시가 끝났을 때, 영적인 선물들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 그렇게 침례 교회에서 나를 가르쳤다. “더 이상 선지자들도 없을 것이고, 치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자들이 또 다른 극단으로 갔고, 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소유하였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분명치 않은 모든 종류에 것들을 행하면서, 부차적인 것들을 열광적으로 활약한다. {2}

그러므로, 영적인 선물들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재림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선지자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엘렌. 지. 하몬이, 엘렌 지. 화이트가 되었다. 그녀가 예언의 선물을 받았고, 또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위대한 재림 운동에서 건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성경상의 원칙으로부터 그녀는 8가지 건강 법칙들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머리 글자로 된 말로써, **뉴 스타트 (NEW START)** 단어를 기억할 것이다.

N에 뜻은 좋은 영양 섭취. **E**는 건전한 운동. **W**는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안과 밖으로 사용한다. **S**는 충분한 햇볕을 받고, **T**는 절제, 또는 자제력이다. **A**는 깨끗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깊숙이 들여 마셔라. **R**은 적당한 휴식, 이것이 매주 안식일이 휴식하는 날로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T**의 뜻은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라.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언의 선물을 가져온 목적이었고, 또 건강 기별을 회복하기 위하여 큰 요양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켈록 의사가 얼마 동안 관리하였다.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도처에서 병 회복을 위하여 이 요양원에 왔다. 그리고 맨 처음 SDA가 건강 식품점을 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신에 의하여 착수되어 야의 백성들을 회복하였다.

또 다른 것들이 회복된 것은, 종교 법칙, 또는 교회 법칙이다. 개혁이 긴 세월을 통하여 진행되는 동안에 개혁한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들로 (개신교) 일컫기 시작하였다. 만일 그대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프로테스탄트가 무엇 이냐고 질문하면, 그들이 몇 가지들을 말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사전을 찾아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 또는 그와 같은 무엇인가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기본적인 교리에 두 가지 요점을 믿는 자들이다.

넘버 1.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믿는 종교적인 문제들 안에서, 개개인의 양심이 국가 치안 판사나, 치안 판사의 재판 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개인의 양심이 국가 치안 판사의 결정을 능가한다.

넘버 2.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로써 성경에 있는 야의 말씀을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을 능가하여 지킨다. 바뀌 말하면 야의 말씀을 교회의 권력을 능가하여 상위로 간주한다. 지금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신조의 뜻을 분명하게 한다. - 이 두 가지가 주요점이다. 만일 그대가 이 두 가지 요점들을 믿지 않으면, 그대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Yes. 그들이 교황 정치 체도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악행을 반대하여 항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으로써 SDA 교회가 행한 악행까지도 항거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그들이 프로테스탄트 교리 신조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 SDA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리 신조에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의 믿음” 깨달은 개혁 교회들이 있었다. 그대는 일찍이 ‘제사장들의 믿음’이라는 말에 표현을 들어 보았는가? 아무도 어떤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형제다.” {마태복음 23:8.} 베드로전서 2:9절을 읽는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믿음들을 가졌다. 아무도 어떤 다른 자들 위에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도 없다. {갈라디아서 3:28.}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위치에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였다.

우리가 창조 SDA 교회이므로 몇몇의 다른 것들도 회복하였다. 하나는 침례 형식과 방법이다. 우리가 바로 지난번 침례에서 그대가 목격한 것처럼, 목사나 진도자가 직무를 행한 것은 촉진자로서 용이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물에 잠기는 침례를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뿐이다. 침례교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서 그 견해를 상기시켜 돌아오게 하였고, 또 물에 잠기는 자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단행하지 않았으며, 재림 운동을 하던 어떤 다른 자들도, 적절한 침례 방식을 회복하지 않았다.

야쉬와께서 침례 받았을 때, 침례 요한이 그분을 붙들지 않았고, 물 속으로 넣지도 않았으며, 물에서 들어 올리지도 않았다. 야쉬와께서 그분 자신의 의지력으로 물 속에 들어갔으며 또 물 속에서 나오신 것은, 그분의 언어에서 의미가 담긴 말씀으로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요한복음 10:17,18절을 알기쉽게 바꾸어 말한다.}

Yes. 우리는 새로운 빛과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대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능가하여 어떤 지배자가 되지 않는다. 나는 목사지만, 나는 그대들 누구든지 능가하여 지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대를 침례로 장사 지내도록 하고, 또 내가 그대를 물 속으로 잠기게 하고 또 그대를 물에서 들어 올리게 하라” 이것은 내가 그대를 능가하여 어떤 지배권을 가진 어떤 뜻을 내포함이 그 안에 있다. 나는 그저 그대의 형제이다; 나는 용이하게 하는 촉진자일 뿐이다. 나는 그대가 이 의식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하여 끝내는 것을 그곳에서 보는 것이다.

창조 SDA 교회 운동을 통하여 근래에 또 다른 문제를 회복한 것은, 새 달 (New Moon 월삭)의 교리를 겸손으로 행한다. {3} 거룩한 입마춤으로 자신을 반성한다. 거룩한 입마춤은...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사물들을, 야의 마음 안에서 거룩한 사물이 되게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별이 회복된 것은, 복음의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죄를 승리하는 기별이다. {4}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다. SDA 교회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인 것을, 내가 그대에게 강조하여 말한다. 만일 그 의가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 반영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가짜다.

또 교회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대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을 인터넷에 의하여 듣는 자들과, 이 장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전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 기별이 회복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인터넷으로 멀고 넓게 살펴보았을 때, 오로지 두 증인들이, 온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다.

Yes. 야쉬와의 의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하는 진리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지이다.”고 외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성경 말씀들을 펴자. - 신명기 28장...

이것이 “교회 멤버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어떤 자들이 질문할 것이다. 멤버쉽에 관하여 내가 말하기 전에 교회의 토대를 세워야한다. 신명기 28:9,10,13,14. 절을 우리가 보면, 야께서 승리에 생애를 사는 거룩한 백성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네가 야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야께서는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네가 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리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13, 14절 “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 야 너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경청하고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들이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말한다.

내가 두 요점들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되돌아가서 그것에 대한 기별을 말한다.

내가 건강 개혁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에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래 규정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서 본다. 그 최초에 규정식이 회복되었고, 또 이것이 역시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온 것이다. 창세기 1:29절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것이 어텐에서 최초로 먹었던 음식이고, 또 이 세대에서 야의 백성들로부터 회복되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한 대로 순응할 수 있는 몸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식이 되는 것은,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질 새로운 규정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5:26절에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네가 야 너의 [아버지]의 음성에서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야이기 때문이다.”

자연치료 요법 운동으로 의술을 대신하였다; 이것이 “야” 교회에게 회복된 일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분 백성들에게 주신 야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신 야의 의도는 약물(Drug) 사용하는 자가 없어야 하고, 또 우리는 완벽한 건강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들이 성경 구절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OK, 승리에 기별로 돌아가서, 건강 기별을 통하여 모든 부분을 승리할 수 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한 생애는, 야의 기별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스겔 3:17-21절이 기초적인 구절들로서 의인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네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이것이 승리에 기별의 요약이다.: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스파냐 3:12,13절을 보라. -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또 계시록 14장과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144000 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읽을 때 그대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스파냐 3:12,13.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고통 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두리니, 그들이 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들은 건강하며, 그들은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으로 스파냐 3장에서 예언한 것이다. 계시록 14장에서 그것이 완성됨을 본다. 계시록 14장 1-4.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 위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들 이마에 “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대함을 볼 수 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십 사만 사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야와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5절: “그들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야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 스페나 3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똑 같은 묘사다. 6절이 세 천사들의 기별로써, 우리에게 144000 명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흠이 없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위대한 재림 운동을 통하여 그 개념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144,000 명이 예언의 완성으로, 그들 마음 속에서 승리에 기별을 가진 자들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6:17,18. “그러므로 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야가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야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야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우리가 승리의 기별을 회복하였다. 우리는 육신과 영 둘 다,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한다. 야를 두려워하여 우리는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이 연구를 결말짓는다. 히브리서 12:6,7,8. “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는 바로 고치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또는 바로 고침을) 견디어 내면 야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요 (위법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더욱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고치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한다: 우리가 차라리 영적인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 자신이 며칠동안 방종하면 그들이 [우리의 세상 아버지들] 참으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의 영]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건너뛰어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야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이 거룩함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기별이 지금 교회에서 회복되었다. 이것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오로지 야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다. 모든 교회들이 그분의 교회라고 주장한다. 만일 그들이 이 기별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분의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사단의 시나각이고, 바벨론에 혼란이지만, 지금 그곳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 집회들 안에 속임을 당한 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도주를 아직도 마시지 않았다. 그들은 부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고, 이 새롭게 하는 때 안으로, 회복하는 이 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이 정한 교회 멤버십에 회복을 적절하게 연구할 것이다. 나의 희망은 여러분들이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오기 바란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야께서 교회 멤버십을 적당한 위치에서 회복하시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취급할 것이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에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또 이것이 창조 이후로부터 유대 교회를 통하여 줄곧 우리에게 왔으며, 그리고 난 후 사도교회, 그리고 개혁 교회들을 지나왔으며, 그 다음에 위대한 재림에 각성으로,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DA 교회, 그 다음에 SDA 개혁 교회들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대한 창조 SDA 교회 운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를 하늘 빛으로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진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 드리고,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의에 예뻐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 드리고, 우림과 돌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 드리며, 이것은 대제사장이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리들로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 드리고, 또 이러한 거룩한 것들을 적절한 장소들에서 회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집회를 기대합니다. 교회 멤버십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단행하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안식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축복하소서. 야쉬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1} 부록 A1 보시오.
- {2} 부록 A2 보시오.
- {3} 부록 A3 보시오.
- {4} 부록 A4 보시오.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2장: 가족 - 2001년 3월 17일

교회 멤버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족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가족을 말하는가, 또 우리가 가족에 대하여 말할 때 하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세상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에 관하여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주제만 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 2장, “가족”에 관하여 진행한다.

영적인 가족이다. 요한복음 1:12,13.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그분이,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우리의 관습대로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늘 가족들을 말하고 있다. 하늘 가족들이 하늘에서 거주하고, 이 세상에서 거주하는 하늘 가족이 있다.

고린도후서 6:14-18.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또는 호응]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또는 불신자]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야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야의 성전임이라. 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또는 나의 가족] 되리라.’ 그러므로 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야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얼마만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야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는 하늘 가족의 일부분으로써, 줄곧 큰 축복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야를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구절에서 하늘 가족의 일부분에게 어떤 조건들을 그 분이 주셨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만일” “무엇이 만일인가?” “만일 너희가 분리에 관하여 나와 동의하면.” 그대는 부정한 가족과 분리해야 한다. 그대가 부정한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거룩한 가족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마이클과 그의 천사들을 대적하여 싸웠다. 둘 사이에 더 이상 동의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거룩함과 반역,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도 실행 될 수 없고; 하늘 왕국 안에서는 더 더군다나 실행 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 가족을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세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하늘 가족을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3:1. “보라, [또는 주목하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야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또는 인정]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또는 인정] 못했기 때문이라.” 메시아이신 야쉬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분께 달려가서 말하기를 “오 메시아!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아주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 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분이 참된 메시아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 드리자!”고 말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였는가?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분을 몰랐다. 그분이 훌륭한 일들을 하였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분이 가족을 연합시키고, 기적들을 행하였으며, 군중들을 먹였으나, 그분 자신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분을 사탄이라고 일컬었으며 그분을 바알즈벳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데 얼마나 더욱 더 실패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사탄이라고 여러 번 불렀다. 나는 바알즈벳이라고 한 번 이상 불림 당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이유는 이전에 우리 만형이 바로 이와 같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것이 나를 감동시킨다. 우리를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들로 언급하였으므로 내가 축복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나의 살갓 위에 “성령의 뽀루지”를 가진다. 하늘 가족의 멤버가, 아직도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다.

로마서 8:14-16.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노예]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또는 아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대가 이해한 것처럼, 하늘 가족이 야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것은 육신을 빼 놓은 것이 아닌가? 만일 그대가 육신에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영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영과 육이 서로 전쟁한다. 야의 아들들과 딸들은 ‘영’으로 인도 받으므로, ‘영’ 그 자체가 우리를 야의 자녀들로 우리 ‘영’들과 함께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빠, 오 나의 파파’라고 외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와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께 달려 갈 수 있는 것은 아빠가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아빠는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선물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는 하늘 가족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아직도 이 세상 가족으로 살고 있는 하늘 가족을 말하는데 있어서, 이 가족은 세상에 있는 양상과 같다. 우리가 지상 가족이면서 하늘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대가 새로 태어나야 하늘 가족에 일부분이 된다.) 이것이 결과적인 교회 가족이다. 우리가 지금 지상 교회 가족에 대하여 잠시 동안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11,12,13.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또는 들음] 너희 가운데 다툼이 [불화]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받은 보고는 교회 가족 멤버들 가운데 누가 어느 수호자를 가졌는가에 대한 다툼과 불화가 일어난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대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나간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23절까지 전 장을 읽는다.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히브리 성경)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그대가 보는 것과 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너희를 믿음 안으로 데려온 자들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야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시는 분은 야 뿐이시니라.” 지금 심는 자와 물주는 자가 하나다: 이것을 이해하라: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가 하나이니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바울과 아폴로가 하나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지금 이 연합을 하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연합된 실상이며 그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야의 경작지요, 야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지금, 바울이 좀 오만하다고 -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충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영감 아래서 말하고 있으며, 그가 성령의 영감 아래서 기록하였거나, 또는 그의 대서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영감에 의한 말들로써, “내가 뛰어난 건축가다. 내가 기초를 닦았다.”고 바울이 자랑하여 말하는 소리 같다.

“...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오직 기초가 될 수 있다. 어떤 다른 기초는 참된 기초가 될 수 없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리고 참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나타날 것이다. 바뀔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기초를 닦았다. 만일 아폴로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지었으면, 그것이 증거 할 것이다. 만일 그가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것이 역시 증거 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알라: 그가 개심 한자들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개심한 자들이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단이 씨를 뿌릴 것이 아닌가? 그가 알곡 가운데 어느 정도의 가라지를 심을 것에 관하여, 야쉬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였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 날이, 심판 날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이 금을 태울 수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금을 정결케 한다. 불이 짚이나 그루터기를 태울 것인가? 그것은 그것들을 태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었으면] 야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불로; 여기에서 문맥의 전후 관계가 어떻게 적합성을 이루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원칙을 가지고 어떤 예언자의 면허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성경말씀에서 그러한 실례가 있다. 그러나 여기 이 문맥에서 옳은 것을 택하여, 그가 우리 영혼들의 구원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야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지 않으면, 그는 멸망당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만일 너희가 나에게 오고자 하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하라, 어둠으로부터 분리하라; 만일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그러나 위선적인 개심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야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아주,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다. 루시퍼가 그 자신을 속인 것을 기억하는가? 그 타락한 가장 높은 천사... 그가 그 자신을 속였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야께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 다시 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또는 비어 있는) 것이다.”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 문장을 두 길로 볼 수 있다. 여분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어떤 자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칙 목사가 나를 이 기별로 인도하였다,” 또는 ‘X 목사가 이 기별로 나를 인도하였다’ 또는 Y 목사 또는 Z 목사가 나를 이 기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그리고 같은 조짐으로, 칙 목사가 자랑하는 말로 “내가 백 명을 이 기별로 인도하였다. 내가 전도 회에서 연속 강의하여 백 명에 영혼들을 구원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들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 그 문단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로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생각한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야께 속한 것] 이로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야 안에서 안전하다. 누가 더 좋은 목사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 또는 누가 대부분의 영혼들을 인도하여 왔는지에 관하여도 논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복음 전도자들이 무수한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이 전도 쉼이나를 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인도한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거의 경배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전도 쉼이나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로 자랑하지 말라. 그분이 말하기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이 인도한 무수한 사람들이 진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 날” 그것이 불로 증명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야의 성전이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에 대한 맛을 조금 더 곁들여서 이해하기 위하여 4:14-17절로 간다. 지금, 4장에서 이 지점까지 우리가 읽었다, 그러나 그가 행한 것은 기본적인 어떤 책망을 조금 한 것이다. 물론 바울은 책망을 잘 한다. 그러나 14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가 그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느낌을 가질 것을 알았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다.”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가족을 말하였다.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그의 아들과 같이 경고하였다. 지금 그들이 야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역시 ‘지상’에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 15-17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야쉬와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잠깐만,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의견을 바꾸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수호자이고 내가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다.”고 한다. 너희에게 천천 만만의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안식일 장년 교파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너희에게 한 수호자가 (아버지) 있다. 지금, 다시 그가 자기 자랑을 조금 하는 소리 같지 않은가?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 그가 적절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족으로써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오. 바울 - 우리가 이 구절을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 다른 성경절에서 그가 넓은 생각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17절: “이로 인하여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디모테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지금 그가 작은 디모테를 말하고 있다. 바울이 디모테 전서와 디모테 후서에서 디모테를 디모테 형제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하라. 그가 말하기를 “...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가? 그가 권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의 권위가 하늘 보좌로부터 곧바로 왔다.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자신을 주장하였다. 나는 “대부 (종교적인 영혼의 아버지: Godfather)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인가 싶다. 그대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대부, 그러한 어떤 것이다. 아마도 ‘대부’의 사상이 그것으로부터 변질되었을 것이다. 로마 개톨릭 교회가, 그들의 성직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아버지 (영문으로 - father - 미국 사람들은 개톨릭 교회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 이것이 또 다른 오용이다.

내가 여기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하늘 가족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를 단련하는 것이며, 또 그들이 이 세상 가족 멤버들으로써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이 있고 또 가족적인 권위가 있다. 가족들이 서로 어떤 존중함이 없이 하나가 ‘내가 이곳으로 간다.’ 또 하나가 ‘나는 저 곳으로 간다.’ 또 하나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하겠다.’ 또 다른 가족 하나가 말하기를, ‘나는 저것을 하겠다.’고 함을 그대가 볼 수 없다. 가족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대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 자나, 누구든지 그대를 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도록 한 자는 그대의 영적 아버지다; 그리고 그대는 그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대는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은 그대를 아들과 딸처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그대에게 선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먼저 바울이 디모테서에서 또 디도서에서 바로 언급하여 보여 준 것을 보자. 바울이 디모테에게 기록한 디모테전서 1:2.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테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다음에 디모테 후서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디모테후서 1:2.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 이것은, 혈통 관계가 없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그를 믿음 안으로 데려왔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고 하였다. 디도서 1: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빌립보서 2:19,22. “그러나 내가 주 야쉬와 안에서 바라는 것은 디모테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테의 증거를 아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가 디모테와 관계를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가 복음 사업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바울을 섬겼다. 그러므로 교회 가족은 글자 그대로 가족이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대는 아버지들이 있고, 그대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으며, 아들들과 딸들이 있다. 그리고 하늘 교회 안에서 그대가 존중히 함을 가진 것처럼 지상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족에게서 같은 존중히 함을 가질 것이다.

또 다른 실례로, 형제 관계는 빌립보서 2:25.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그가 그의 동역자를 형제라고 불렀다.

최근에 우리에게 빛이 온 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경의를 표하여 부르는 것이다: 에드 형제 키뜨 형제, 엔토니 형제 등등..

이것이 경의를 표하는 친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가졌다. 데살로니가전서 2:10,11..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야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또는 격려] 위로하고 문책 [영문성경] 하였으니.” 여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다시 그의 음성이 조금 오만한 것 같지 않은가?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내가 여행 중에, 그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에드 형제여, 그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였고, 또 얼마나 흠 없이 행동하였고 또 얼마나 의롭게 행동하였는가는 그대가 증인이다!”고 함을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종류의 말들을 듣기 싫어한다.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러한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건하고 흠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된다. 그리고 무엇이 한층 더 큰 충격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경건하였어도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고 한다. 내가 그대에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고, 또 내가 들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데 있어서 잘 생각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대 집을 방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그대 집을 방문하여 노련한 55세의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아직도 지능이 다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말하여 주기 부탁한다! 선한 가족 멤버는 나를 도와서 나의 허물을 알 수 있게 한다. 내가 만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내가 똑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십시오. 그리하여 바르게 고쳐지는 것이다. 가족이 서로 바로 잡아 준다. 가족이 서로 풍부한 사랑으로, “자매여, 그대의 불에 흠이 조금 묻어 있소.”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며, 우리가 바로 흠을 씻도록 하여, 그들이 다시 깨끗하게 된다. 영적인 가족으로써 -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에 대하여 구주의 태도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역시, 구주의 태도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생생한 묘사를 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46-50. “[야쉬와]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목하십시오]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에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라고 하니” 지금 여기에서 아주, 아주, 희한한 응답이 있다: “[야쉬와]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목하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이라.’” 그분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는 아는가? 그대가 이 생생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분이 그분의 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분이 혈육의 어머니를 창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분이 혈육의 형제들을 창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영적인 가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구주의 태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가 행하는 한 그대는 나의 인척이요, 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는데, 그 동전 이면에 뜻이 있다. “그러나 만일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참된 인척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증거한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분이 노골적으로 그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 연구 마지막 끝에서 숙고할 것이다.

지금, 이것들이 그대에게 새로운 것들인지 나는 모른다; 그대들 중 얼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 이것은 구식이다. 이것이 내가 줄곧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거처온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그대에게 새로우면, 축복이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이 구식일지라도 축복이 되게 하라. -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많이 들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야의 가족 안에서 연합은 꽤 중요한 것이며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2:11절에서 이것이 절정에 이른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지금, 연합이 있다. -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다. (영문성경)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만형이시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 1장을 마쳤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본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의 생각에서 조금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영적인 안경을 쓰고, 또 이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 - 왜냐하면 잠시 후에 이것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지금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갈라디아서 3:26-29. “너희가 다 메시아 야쉬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메시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메시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야쉬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대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들이다. 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가 되리라.” 창세기 17:4.

영적인 이스라엘로, 약속된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를 바로 접붙이고, 우리를 바로 그 안으로 들여왔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유업 자들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 많은 형제들이 이것을 듣고 또 읽으면서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원하는 다른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이 실행하도록 한다. 내가 바로 그대들에게 몇 마디로, 간결하게 말하기를 원한 것이다.

로마서 9:4-8. 여기에서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글자 그대로 그의 ‘혈육에 따른 인척관계’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 받으실 야시라. -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 이 진술이 어떠한가?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것은 헛가 잘 돌지 않는 말이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 혈통으로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믿음 안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그대가 안다.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야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 그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더 앞으로 나가서 로마서 11:1-5.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야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목사님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끝장났으므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가고 있고 -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말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지금 바울이 혈통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가 혈통으로 다시 와서, 이 혈통도 마찬가지로 그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바로 그 혈통이 아니고, 또 육신을 따른 족보에서도 아니다. {디모데전서 1:4절을 보라} 그것은 믿음의- 혈통이다.

2-5절 “야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또는 일라이]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는가?] 그가 야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증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야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또는 마지막 부분]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야의 선물이라. 혈통으로부터가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그가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나의 동족을 시키 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혈통을 거절] 세상과 화해하여,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그대가 이해할 수 없는가? 그대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종족이 믿음이 부족하여 버림을 받았으나,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영문 성경) 또한 거룩하고...” 누가 첫 열매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므로, 그가 거룩하면, 그분 안으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역시 거룩하다.” 지금 여기에서 그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17절을 설명하고 있다. 27절까지 설명한다.

17,18절 “그러나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어지고 [이것이, 약간의 이스라엘 혈통] 둘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바꿔 말해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나무 가지가 영양분을 어디로부터 섭취하는가? 뿌리로부터다. 그리스도께서 뿌리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내가 만일 한 가지를 거룩하게 행하였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거룩함이 나로부터 나온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가지로써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으면, 내가 거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 모두가 이치에 맞는다.

어떤 고대 영어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 이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혼동할 것이 없다.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 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거절당하였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존경하라. 그대는 내 말을 이해하는가? 21절: “야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지금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 하실까 주의하라.” 바꿔 말해서, 그대 자신을 주의하라. 자랑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그대가 접붙임 되었는지 확신하라: 그대가 뿌리로부터 거룩한 수액을 흡수하고 있는지 확신하라. - 왜냐하면 모든 나무가 열매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대의 가지에서 보잘것 없는 열매를 맺으면 그대는 참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참된 뿌리에 그대가 붙어 있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22절: “야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에 분광이 있다: “야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속지 말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롱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으로 심는 자는 욕심으로부터 멸망과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이방인들]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 지금 조건이 있다. 이 조건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을 이해하는가? 조건들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계속 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꺾이리라. 그리고 그들이 역시, 믿음에 거하면, 접붙여 질 것이다: 야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리브 나무에 다시 데려 올 수 있고, 또 가지들을 뿌리 안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가장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

24절: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또는 거만한 생각] 자만하지 [또는 오만한 생각]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무지하게 (영문) [또는 무정하게] 된 것이다.” 26절에서 결론을 들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야쉬와 메시아 외에는 누가 구원자인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야쉬와라고 부를 것이다. 왜?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야쉬와라고 부르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그분 백성들의 죄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쉬와(Yahshua)에 뜻이 무엇인가? “Yahshua 야쉬와, 의 언어는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이름이 Yah-shua 야-쉬와. 그 뜻은 Yah 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 Shua 쉬와는 Savior 구원자. ‘야’는 - 우리의- 구원자 (Yah-is-our-Savior).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가? 우리가 죄의식 안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결론짓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으로 결론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버리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손들을 높이 들고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빚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의 가지들이 아닌 우리를 접붙일 수 있으시며, 그분이 역시 우리를 혈통으로 돌아가게 하여 접붙일 수 있다. -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국가적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단지 개인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 한 명씩, 영혼들이 구원된다.

아무도 다른 자보다도 조금도 더 나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거룩한 뿌리에, 너희가 거룩한 나무에 접붙여졌으므로, 그대는 반드시 거룩하다! 이것이 지당한 상식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이다. 야곱이 참으로 개심 하였을 때 그의 이름이 변경된 것을 그대가 기억한다. 야곱의 뜻은 “빼앗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 지금 이것을 보자. 승리자의 뜻이 무엇인가? 승리자의 뜻은 “죄를 정복하여 승리를 거둔 자이다.” 마태복음 7:21절을 본다. 여기에서 구주의 말씀을 읽는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자는 야, 또는 야웨로 대신하기를 원할 것이다; 어떤 자는 선생님이요 (마태복음 23:10) 말하기 원할 것이고, 어떤 자는 야쉬와, 어떤 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원할 것이다, 그대가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다. - 그대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든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것이 얼마 전에 마태복음 12:46-50절에서 읽은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가?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족은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 갈 수 없다.” 내가 잘못 읽었는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오 사업들 - 그것이 문제였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내 가족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무엇이 불법인가? 죄다. 만일 그대가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대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대가 구원받았을 때, 그대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영문) {롬 6:1,2.}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그대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요한일서 3:9,10. 이 성경말씀이 아마도 다른 모든 성경말씀보다도 설교자에게 더 많은 문제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였을 때까지, 그대가 아는 것처럼 나도 그것이 큰 골칫거리에 원인이 되었으나, 내가 그분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분의 거룩한 영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골칫거리에 원인이 되지 않았다. 요한일서 3:9,10. “야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가 잠깐 여기에서 중지한다. 어떤 새로운 번역문들이 말하기를, “야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 짓기를 연습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이 구절을 변경시켜서, 본래의 적절한 언급을 약화시킨 것을 그대는 아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이 새롭게 성경 번역문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죄를 그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 - 스트롱스 컨코던스를 찾아보면 - “commit 짓다, 행하다,의 단어는 한 행동이며 그릭어의 뜻은: - 죄를 짓지 (실행) 않는다. 한 행동, 단 하나의 행동. 지금 그대가 말하기를 ‘오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요.’라고 할 수 있으나, No,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그대는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아는가? ... 실례를 들면:

그대가 큰 망치를 취하여 가지고 라렌스버그에 있는 병원 분만실에 가서 갓난아기의 머리를 칠 수 있는가?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대가 큰 망치를 가지고 분만실에 가서 갓난아기를 때릴 수 있는가? 이 장소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오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가능하다. 그대가 큰 망치를 들 수 있고, 그대가 분만실에 갈 수 있으며, 또 그대가 그들의 머리 위에 망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 그것이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러한 마음이 없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대가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야의 가족들의 태도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어두움과 타락으로부터 구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다. 우리가 지독한 죄의 독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 우리가 난로에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 그대가 만일 난로에 손을 대었으면, 그대가 화상을 입었고 또 그대가 다시는 그것에 손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한 우리의 경험도 이러한 방식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원치 않고, 또 우리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시는 그 죄에 말려들지 않는다. “야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그리스도]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야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 생각 안에서) 야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알게 됨)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야계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가족이 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에 키가 된다. 그대가 우리의 야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야쉬와와 함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그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구원받았으면,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대는 그대의 동료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대의 원수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O.K. 계시록에 있는 약속들 몇몇을 본다. 영적인 이스라엘, 승리자에게 몇몇의 약속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메시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약속들을 읽는다. 계시록 2:7절이다.

O.K. 계시록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O.K. 이스라엘이 생명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2: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생명나무를 먹고, 또 두 번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성경 구절에 대하여 더 연구할 것이며, 둘에 대하여 더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승리한 자들,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다. 계시록 2:26-28.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끝까지 알고, -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승리한 그들]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 같이 산산조각으로 [작은 조각들]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재미있는 연구다. -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새벽 별”에 대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승리자들]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결혼 예복],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생명 책에서 어떤 이름들은 지워질 것을 그대는 아는가? 어떤 이름들이 생명 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계시록 3:12. 이것이 모든 성경말씀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위에 새 세목들이 기록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새 도시에 이름,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지상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 위에 기록된 대로 - 그것이 그들의 여권이 될 것이다. 사실, 다음 주에 있을 레슨들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고한 것이다:

교회 멤버십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여권”이다. 이것을 다음 주에 내가 증명하고자 한다. 지금 교회 멤버십이 그대를 구원하지 않는다. -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이며 -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추어져야 한다; 또 그대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멤버십이 필수적이다. 교회 멤버십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연구할 것이다. 우리가 가족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에 단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계시록 3:21. “이기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하늘에서 실족한 천사들을 대신할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루시퍼가 하늘 천사들 삼분의 일을 데리고 갔으므로, 야게서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실족한 그들을 대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긴 장이었으나, 흥분을 자아내게 한 장이었다. 그대가 다음 주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2:12-14.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로마서 12:4,5.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이해하는가? 그들 각자가 멤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나는 그분의 일 부분이 아니다.’고 그대가 말할 수 없다. 조심하라, 그대가 참된 줄기로부터 그대 자신을 잘라 버릴 수 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들 서로가 멤버들이다. 아무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도 아프다. 그대가 언젠가 발가락을 부딪쳐 보았는가? 내가 나의 발가락을 여러 번 부딪쳤다, 그리고 그대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그것이 내 위장을 메스껍게 하고,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만일 몸이 아프면, 그것이 몸 전체를 아프게 한다. 우리 각자가 멤버들이다. 연합의 언어를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일관성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이다. 이것을 결정적인 성경구절로, 끝마친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젓혀놓을 수 없다. 이장을 내가 참된 주 기도문이라고 부른다. 언젠가 그대가 이 장을 아주 주의해서 읽으면 그대가 큰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17-23.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내 제자들] 세상에 보냈사옵나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나이다.” 바뀌어서 말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이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연합이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 22절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말씀인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끝나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테스트가 된다. 만일 그대가 이 기별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집중하지 않았으면, 이 노선에서 주의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3:34,35.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야쉬와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대와 나를 위하여....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의 안락한 생애를 버리고, 그분의 하늘 무리들의 사령관에 위치를 버렸다.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에 위치도 버렸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만일 [조건적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멤버쉽 -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지금쯤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다음 주에 그대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참석하기 바란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기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존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하늘에 있는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 인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함으로 또 가지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에 우리가 감사 드립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음 주 안식일에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산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 드리고 아들 야쉬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3장: 기념이 되는 돌들 - 2001년 3월 24일

지난 주에 우리가 가족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을 바로 요약하고자 한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가족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가족에 관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가족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의 친족 관계를 말하였다. 우리가 실제적인 가족으로써, 혈통 가족의 인척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약간 취급하였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에 언어를 취급하였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뜻이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국가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이고, 또 혈통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왔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또 그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하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다.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계속 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교회 상태가 있다. -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교회들 가운데 가족 상태가 있다. 그것을 “리오디케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계시록 3장에서 찾는다; 내가 이 연구를 둘로 나누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다음 주에 4번째 부분을 연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종결 될 것이다. 내가 감지한 것보다도 아주 더 더욱 많은 자료들이 있으므로, 내가 지난 주에 행한 것처럼 장시간을 쓰지 않기 위한 것이다.

계시록 3:18절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요법이며, 치료제로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식별력이다. 우리는 안약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위하여 여기에 올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여야 하고, 또 문맥 안에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도 2:14. “그러나 자연인은 야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또는 영적인 판단] 때문이니라.” 오늘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료들을 취급할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

말라기 3:16-18. 예언자의 기별이다: “그 때에 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 책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 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전능하신 분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이 날이 야께서 그분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이다. 우리가 아주 마지막 때 부분에 살고 있으며, 야께서 그분의 귀중한 보석들을 모으실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144,000 명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분이 모으신 첫 열매가 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분이 모으신 그분의 가장 귀중한 보석들이다. 그리고 식별력을 회복한 자들이다. 우리가, 144,000 명에 그룹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영적인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사이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의와 부정한 것 사이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 멤버십에 중요함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재림 교회에 잘 알려진 구절들에서 시편 77:13. “오 전능하신 분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전능하신 분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이까?” 야의 길은 성소 안에 있으며, 또 지상 성소가 있고, 또 하늘 성소가 있는 것을 그대가 기억할 수 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임을, 우리가 잠시 후 여기에서 읽는다.

먼저 야께서 대제사장에 관하여 모세에게 준 어떤 지시들을 우리가 직접 보기로 한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가 성소에 대한 문맥을 1-12절까지 읽는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그대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은 지상 성소에 대제사장이었다. 지금 야께서 지시하신 지상에 대제사장의 옷에 모형을 본다. 출애굽기 28:1절로 시작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네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의복을 만들지니라.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여기에서, 지금 기억할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여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약정 기간들을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4-6절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니, 흉배와 에봇과 겹옷과 자수옷과 관과 [또는 두건] 허리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베실을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을 써서 정교한 솜씨로 에봇을 만들되”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의 뜻을 설명하지 않지만, 모든 색깔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재미있는 연구가 된다.

7-8절 “에봇에 어깨띠를 두 개 만들어 양쪽 가에다 달아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또는 서로 연합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의 상징을 갖는다.]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 짜는 법과 같게 할지니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멤버십**에 대한 아주, 아주 중대한 어떤 핵심으로 들어간다. “너는 얼룩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의 출생 순위에 따라 한 보석에 그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새기며”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핏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혈통의 가족을 말하였으며, 우리가 태어남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된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에 일부분이 될 수 있는가? 새로 태어남으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에 의하여서다. 그대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야의 가족 안에서 태어났으므로, 또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경배 드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상 성소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늘 성소 안에 있다. 또한 야쉬와, 우리 대제사장이, 이와 똑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개의 얼룩마노 보석을 양쪽 어깨 위에 메고 있다. 출생 순위에 따라 한 보석에 그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새긴다. 지금 이것은 그들이 혈통으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하늘 안으로 새로 태어난 순서에 따른다.

11절 “너는 보석에 새기는 자의 솜씨가 인장에 새김같이 하고...” 문자 그대로 “인장”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는 아는가? 그 뜻은 “날인하다. 봉인하다,” “너는 보석에 새기는 자의 솜씨가 인장에 새김같이 하고 [또는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그 두 보석에 새기고 보석들을 금장식에 물릴 [고정시키] 지니라.” 야쉬와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로 연단 된 금이다. 우리가 야의 새로 태어난 자녀들으로써, 야쉬와의 믿음 안에서 고정될 것이며, 위에서 태어났으므로, 보석에 새겨져서 봉인되어, 대 제사장의 어깨 위에 메었다. 12절 “너는 그 두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기념”에 단어의 뜻을 그대가 아는가? 기록이다. 하나의 기록.. “너는 그 두 보석을 에봇 어깨 위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의 보석들로 삼되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보석 끼우는 받침으로 (고정시키고- 영문) 금장식을 만들고...” 등등

여기 교회 멤버십 서약 증서 건본이 있다. 이 증서에 우리 이름이 있고, 우리가 싸인한 날짜가 있으며 또 야에 계명을 지키고 야쉬와의 믿음을 지킬 서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금으로 고정시킨다. 이것이 기록이다. 이것이 지상 위에 기록되고 또한 하늘에 기록된다. 대제사장 어깨 위에, 봉인되어, 야 앞에서 기록되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5:4-6절에서, 어깨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적용하고자 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일백 마리를 가졌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기록되었으되 실로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헤아려진 바 되었다. 그대의 이름이 헤아려진 것을 그대가 실감하지 못하는가? 목자가 어느 양을 잃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가 그의 이름을 마음 속에 간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가 그 잃어진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그의 어깨 위에 메고 집으로 간다. 지금도 대제사장이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를 메고 하늘 집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대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에 새겨져 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진행을 할 때 - 이 진리가 그대에게 강한 심금을 울려,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49:15,16절에서 또 우리 모두처럼 어머니들이 이 구절로 말미암아 아주 감동할 것이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새겨 넣었다]...” 우리의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 못들이 그분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아신다.

계시록 2:17절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사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대가 이것을 오늘 이해할 수 없으면, 오늘 그대가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이것을 이해하면, 만일 그대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만일 그대가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대의 돌,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얼룩마노 돌에 그 이름들이 새겨진 것을 그대는 아는가. 내가 얼룩마노 돌에 대하여 조금 연구한 적이 있다. 고대 사람들이 봉인하고 날인할 때 얼룩마노 돌을 사용하였다. 이름을 새기거나, 또는 그들이 봉합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였고, 이름을 날인할 때 사용한 훌륭한 돌들이다. 얼룩마노 돌이 흰 돌이고, 싸인할 때 사용하였다.

역시 그분 말씀으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니” (영문) 지금 여기에서 그분이 언급하고 있는 재미있는 개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빛이 밝아지고 지금보다도 아주 더 밝아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이 세상 도처에서 이것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새 빛으로 영감 받은 자는, 우리에게 그 빛을 나누어주면 고맙겠다. 계시록: 21:10-12.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야겔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야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새 예루살렘의 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것을 그대가 아는가? 그리고 계시록 21:21.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12 대문이 있고, 이것들이 12 진주이다. 그리고 각 진주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다. 지금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혈통이 아니다.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파들이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지상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었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여기에서 이치에 맞는 요점이 되는 누가복음 10장으로 간다. 그런데, 진주는 흰 돌들이다; 그분이 우리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는, 새 예루살렘 흰 진주 대문에 우리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누가복음 10:19,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걸코 헤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하시더라.” 지금 그들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 책에 기록되었고, 또 그들 이름이 대제사장 어깨 위에 있는 보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대 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기록되었다. 그대 이름이 개인적으로 어린양의 생명 책에 기록되었고, 또 기념 책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라.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개심하여 새로 태어난 기독교인이면, 대제사장이 그대를 어깨 위에 메고 가는데, 어떤 지파에 그대가 속해 있는가? 대제사장 어깨 위에 있는 돌에 그대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대가 어떤 지파에게 속해 있는가? 그대가 “나는 속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지파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한다.

더할 나위 없이, 교회 멤버십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된다. 우리의 지파는 “창조 SDA 교회 -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열 하나의 다른 지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전진하면서 상세하게 배울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아마도 우리 지파 이름이 히브리어로 번역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가진 유산인 영어로 취급하여야 하며, 또 야겔서 그것을 존중하신다.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주셨다고 하였다. 알다시피 그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 주시며, 이것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10절로 간다. 이것이 야쉬와의 기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 기도문”이며, 또 내가 바로 10절을 지적하기 원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겔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 그 분이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왕국의 제사장들을 갖기를 추구하신다. 그분이 하늘에 그분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이 땅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견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이름들이 금장식에 고정되어 새겨졌다. - 이것이 야쉬와의 믿음으로다.

신명기 30장. 지금 어떤 자가 말하기를 “오, 그대가 말하는 것이 교파심이다.” No. 우리가 교파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야” 가족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야의 거룩하신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질서에 따른 것이다. 야겔서는 아주 질서 있게 정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구하면,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가 있었다. 하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가 있으므로; 또 지상에서도 그와 같아야 한다. 신명기 30: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사자를 불러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대하여 기록한 것을 본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돌들에 새겨진 기록이, 증인이 되어 말함을 기억하라. 야쉬와게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야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누가복음 9:62} 다른 곳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숙고하지 않고 전쟁하러 가거나, 또는 먼저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건물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4: 27-33. 요약} 사람이 일에 착수하고 그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아주 치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름들이 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요동할 수 없도록 진리 안에서 대단한 방법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슬픔이 될 것이다.

야게서 인침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항상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옹계 이해하라고 하신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인기 있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말씀 하신다. 그분이 우리 이마에 ‘인’으로 그분의 법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분의 법을 기록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약속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늘에 있는 성소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편다.

히브리서 8:1-5.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야게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임명]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 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이것이 모세의 율법]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야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야게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을 보여 주었고, 어떻게 성막을 세워야 할 것과, 어떻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등등을 보여주었다.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그림자이고, 하늘에 형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지파의 일부분으로, 돌 위에 새겨졌다; 우리가 인침 되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의 대문들을 통과하여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연구를 계속하여서, 그 도시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며, 또 교회 멤버쉽이 우리의 서약을 어떻게 나타냄을 그대가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와 같은 가족 관계를 가지므로 그것이 도시 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여권이 될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검토하였다. 출애굽기 39: 6,7. “그들은 얼룩마노를 깎아 [또는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인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금장식에 물렸으며 [고정시킴] 그는 그것들을 예봇 어깨띠에 달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되는 [또는 기록] 보석들로 삼았으니 야게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민수기 1:1,2.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의 첫날에 [그때가 새 달 - New Moon] 시내 광야 회중의 성막에서 야게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계를 [인구 조사] 조사하되 각 남자의 수를 그 명단대로, 그들의 지파들과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그 이름들의 수대로 하고.’” 그것이, 각 가족 사람들에게 숫자다.

각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이 인구 조사로써, 그들이 지파들의 인원수를 총계하였다. 민수기 1:19. “야게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우리가 계수 될 것을 그대는 아는가? 계시록 7:2-4.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십 사만 사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들이 144,000 명이며 -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다; 지금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등등. 각 지파가 12,000 명이다. 친애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계수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계수 되었다. 이것이 숫자적인 넘버든지, 또 그들이 영적인 숫자든지, 상징적인 넘버든지 아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인 고대 이스라엘이 계수 된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도 역시 계수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인침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유사점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 바벨론에서 나온 유사점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이 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실패한 것을, 그대가 기억한다; 특히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패하였다. {에스겔 20:21-24.}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싸이러스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지금도, 유사점이 있다. 재림 운동이 일어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었다, 전 기독교가 교황의 권력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DA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계명들을 지키는 관례로 돌아왔으며,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충성된 영혼들을 불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들의 품성을 건설할 용기가 없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고;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이 무익하였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충실한 에스라, 그 다음 10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도시의 벽들을 건축하도록 현장으로 부름 받았다. 도시에 성벽들이 성품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느헤미야들이 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내서 성품을 건설하도록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이며, 그 기록한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조 SDA 교회 안에서 느헤미야를 보며 또 다른 충실한 재림교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부르고 있으며, 야의 계명과 야쉬와의 믿음과, 야의 성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9장에서 묶어서 뽑아낸 스토리가 일치함을 본다. 느헤미야 9:2.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니라.”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 다음 느헤미야 9:33.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공평}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그대가 9장 전체에 문단들을 읽기 원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한 모든 악한 죄를 고백하고 비탄하는 정상 상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33절에서 그가 말한 것은 “비록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을지라도, 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공평하게 행하셨다” 그 다음에 38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성벽들을 재건하였으며, 여기 예루살렘에 성벽들이 다시 건축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인을 쳤다.”

지금, 깨어 있어라. 여기에서 우리가 일치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도시의 성벽들을 다시 건축하였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왔다;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를 위한 것들을 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고, 증거하는 생애를 산다. 우리가 야의 가족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 언약으로 되돌아간다.

하늘 안에 있는 야의 교회가 글자 그대로 영적인 연합이고, 여기에서 우리를 승인하신 분이 우리 이름들 위에 인을 치셨고, 우리가 이것에 의하여 메시아의 몸의 멤버들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함께 동료가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독특한 지파에 실제로 증명되었으며 [또 이 지역에서 우리가 특유한 족속이며] 창조 SDA 교회는, 야의 계명과 그분의 아들 야쉬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며, 또 그분의 품성을 [성벽들 재건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인다: 야께서 우리의 의이다. (에레미야 23:6, 33:16.)

느헤미야에서 그들이 바로 단행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이름들로 인을 쳤다. 느헤미야 10:1. “인을 친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이름들대로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언약에 그들의 이름들로 인을 쳤다. 지금, 144,000 명을 인치는 조항으로써, 우리가 에스겔 9장을 볼 필요가 있다. 에스겔 9:1-11절까지 전장이다. 예언에 신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144,000명의 인침의 스토리라고 하였다 .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여섯 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 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그대의 영적인 시야를 가져라.]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그대가 그 광경을 보는가? 오늘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중에 누가 근심하고, 우리 중에 누가 탄식하고 울부짖는가? 천사들이 야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표하려고 찾아 다니고 있다.

히브리어에, “표 mark”는 유대 알파벳에 마지막 글자로서 오메가이다. 그 글자가, Tau 이며, 또 에스겔 당시에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것이, 야쉬와의 희생을 통하여, 야의 이름과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었다.

5절: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또는 십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책임 있는 목사들과 또 그와 같은 자들부터 시작된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남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야’ 시여! 야께서는 예루살렘에 야의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대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께서 땅을 버리셨고 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보복] 하시더라.” 이전에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야가 말하노라.” {로마서 12:19.}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여 말하기를 ‘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창조 SDA 교회가, 한 지파로써, 이 기별을 인치는 기별로 세상에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야 계명들과 야쉬와의 믿음을 지키는 - 교회 언약 위에 그대의 이름을 써넣기를 초청한다. 우리가 그대를 초청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야의 이름이 그대의 이마에 인침 받게 되기 위함이다. 이 부분적인 연구를 계시록 14장으로 끝낸다.

계시록 1-5절에서 144,000 명이, 인 쳐졌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 지금 야의 곁에 그대의 이름이 인 쳐져서 놓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대의 이름이 돌에 새겨진 것이다. 우리가 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말한, **인침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있다: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둘 다 진리 안에서 고정되어서, 그대가 요동하지 않게 된다.”** S.D.A. Bible Commentary Vol. 4, p. 1161 - 마지막 날의 사건들 p. 291. - 엘렌. 지. 화이트.

그대가 그대의 이름을 돌에 새겼을 때, 그것이 지워질 수 없다. 그대가 창조 SDA 교회 언약에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때, 그것이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인침 된 그대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계시록 14:1-5.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 위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또는 새겨져]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에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십 사만 사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야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언제라도 승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거룩한 성에 옮겨지고, 또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진주 문들을 통과하여 들어간다. 그들에게 인이 쳐졌고, 그들이 계수 되었으며, 또 그들이 가족이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돌들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이며 멤버들이다. Yes. 교회 멤버십이 성경적이다; 교회 멤버십이 중요한 것은 144,000 명이 그들의 이름들을 확실한 언약으로 인을 쳤기 때문이다. 확실한 언약이 말하기를, “우리가 야의 계명과 야쉬와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 확실한 언약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도록 그대를 초청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교회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더 명백하게 할 것이다.

끝내는 기도할 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 드리는 것은, 우리를 선출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어, 아버지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또 진리 안에서 고정되도록 인치는 기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들을 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그 도시에 문들을 통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뵈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으로써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지파에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한 지파로 배치하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가까웠으므로, 144,000 명 모두가 그들의 지파들을 찾아서 인침 받기 바랍니다. 대 제사장이 성소를 나갈 때가 되었고, 또 시험기간이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축복 받은 것처럼 나머지 안식일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옵소서. 야쉬와의 거룩한 이름과 귀중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해산합니다. 아멘.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4장: 증인들의 서명 - 2001년 3월 31일

지난 주에 배운 것을 아주 간단하게 재검토한다. 우리가 아론의 대체사장 옷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들 이름에, 인이 쳐져서 돌들에 새겨졌음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역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원칙들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본 아론의 옷은, 하늘 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체사장 옷을 반사한 상징이다. 모세의 율법이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계수 하라는 명령과, 또 야의 율법으로 계시록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들을 계수 하라는 야의 명령을 우리가 보았다.

이사야 8:16.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그러므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언급한 144,000 명은, 마지막 날, 마지막 교회이며, 그들 마음 속에 야의 율법이 새겨지고 승리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야의 이름으로 그들 이마에 인이 쳐졌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정된 표를 가졌고 또는 각종 지파들 가운데서 인 쳐졌거나, 또는 집회들로써 하늘 교회의 목적과 그들의 영적인 연합을 표시한다.

지난 주에 고대 이스라엘이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계수되었음이 우리에게 보여졌으며, 또 마지막 세대로 내려온 144,000명이 마찬가지로 이름에 의하여 계수되었다. 세 성경 구절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다. 시편 147:4.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사도행전 1:15-17.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이름의 (영문) 수는 약 일백 이십 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야쉬와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주 미숙한 사도 교회에서도 이름으로 계수되었다. - 이름에 따라서 계수되었다. 사데 교회 천사가 계시록 3장과 4장에서 말한다. “사데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사데 교회를 우리가 보면 그들이 이름에 따라서 계수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구절들로부터 더욱 깊은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름에 따라 계수하여 적당한 장소에 놓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번 주에 또 다른 국면에 교회 멤버십 목록을 탐구하고자 함은, 그것이 중요함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증인들이 서명한 것이다. 이사야 43:12절을 편다.

이사야 43:12.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 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전능한 자라, 야가 말하노라.” 내가 전능한 자임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 설교가 전적으로 성경을 되풀이하여 가르친다. 그렇지 않은가? 사도행전 1:8. -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장 먼 장소]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강력한 증인들이 되었는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들의 실제적인 컨디션을 본다. 그대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한다. 사도행전 10:39-42. “우리는 그가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야께서 그를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 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야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한 것이니, 곧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야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이가 바로 그 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이 증인들이 야쉬와와 함께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본다. 그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가졌다; 그들이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기록에서 그들이 어떤 증인들인지, 찾을 수 있다. 계시록 14:4. “그들이 [144,000명을 말하고 있다.] 여자들과 [그들이 교과심으로 분열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야와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대가 만일 어떤 것에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대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44,000명 이 증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 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들이 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야와 어린양에게 첫 열매들이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하여 더 말할 것이다.

144,000명이 어떻게 증인들이 될 것인가? 계시록 12:11.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그는, 오래된 용, 마귀]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넘버 1: 144,000 명이 어린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 받았으며, 또 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 자체가 증인으로 나타낸다. 넘버 2: 그들이 증거 하는 말이다. 그것이 어떤 증거인가? 어떤 증거인지 계시록 12:17절에서 본다. “그러자 그 용이 [마귀] 여인에게 분노하여 [노여움으로] 여인의 [순결한 여인, 참된 교회] 씨 [144,000 명, 남은 참된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 [또는 마지막 때 남은 부분], 즉 [1] 야의 계명들을 지키며 [2] 야쉬와 메시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144,000명이 야쉬와 자신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증거 하는 말은 야쉬와의 증거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들 144,000명이 한 서약에 전념으로 헌신하였다. 그들이 거짓증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것이었다.

무엇이 또 다른 방식에 144,000명의 증인인가? 야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에레미야 32장으로 간다. 지금 우리가 막 알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영적인 식별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대가 그대의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 에레미야 32장을 읽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분이 토지를 논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읽기 전에, 어쩌면 토지 양도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에레미야 32장을 그대의 손으로 붙들고 또 레위기 25:23-25장으로 간다.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여기에서 지금 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할 지니라.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또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가 그것을 다시 사려고 오면 그 때는 그의 형제가 판 그것을 다시 살지니라.”

아담이 그의 죄 때문에, 소유지를 팔지 않았는가? 아담이 죄 때문에 지상에서 그의 상속권인 직함을 잃지 않았는가? 그가 죄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잃었고, 또 그것을 팔았다. 누가 그의 가까운 친족으로써 그것을 되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의 자손들이 있기 전에 아담을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이 토지를 되사서, 토지를 구하였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후에 그것을 볼 것이다

내가 1986년, 벨슨 예증 성경 사전, 628, 629 페이지에서 “토지”의 주제 아래에 있는 문단을 읽어 주고자 한다. 내가 이것을 그대들에게 읽어주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록하였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관습적으로 모든 히브리 가족이 토지의 몫을 소유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열왕기상 4:25, 미가 4:4.) 가나안 땅은 야게 [그들이 ‘주’라고 말하였다] 속하였고, 그분이 그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24:11-13.) 그들이 그분의 소작인이었다. (레위기 25:23.) 여호수아의 감독 아래에서 땅을 정복한 후, 국토 전체를 각 지파들과 가족들에게 공통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 13장-22장) 경계선의 돌을 옮기면 안 되었다. (신명기 19:14.) 나봇이 왕에게도 (왕상 21장) 가족의 토지를 팔기를 거절한 것이 관례적으로 예시된 것은, 토지가 가족에게 영구 불변의 상속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어려울 때에 토지를 팔 수 있을지라도, 가까운 친족이 정당하게 그 토지를 다시 사주어 가족들의 소유지로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토지는 결국 매 50년째 되는 해, 주블리 해에 (회년), 본래의 가족에게 되돌려져 복귀하도록 하였다. (레위기 25:23-28.) 역시 유업에 대하여 율법들이 보증한 것은 대지가 가족이나 지파에게 남아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민수기 27:7-11.) Nelsosn's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1986, page 628, 629 under the topic, “Land”

지금 우리가 발전 도상에 실상을 보기 시작한다. 아담과 그의 가족이 땅을 영구히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나 곤란한 때들을 지나고,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사탄에게 그가 팔리고 유업을 잃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진 왕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이 왔고, 그분이 가까운 친족으로써 토지를 되살았다. 그리고 그 소유권에 타이틀을 획득하여, 가족이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새 땅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우리가 에레미야 32장에서 그리스도의 실례를 볼 수 있다.

에레미야 32:1. “유다의 시드키야왕의 제 십 년, 즉 느부갓네살 제 십 팔 년에 말씀이 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임을 지금 기억하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선지자 에메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는 감옥의 뜰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유다 왕 시드키야가 그를 가두어 놓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예언하여, 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네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이것을 취하리라’고 하였는가?’ 악한 왕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노한 이유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유다 왕 시드키야가 칼데아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가 시드키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야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데아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하느냐?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감금되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므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속의 권리가 네게 있음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 되었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으며, 또 여기에서 하나므엘이 에레미야에게 토지를 되들려 사도록 요구할 것이었다. 8절 “그러므로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므엘이 야의 말씀대로 감옥의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베냐민의 지역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는 유업의 권리가 네게 있고 구속할 권리가 네게 있음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나는 그것이 야의 말씀인 줄 알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므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 주었는데 은 칠십 세겔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양도증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강조하였다. “...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이것이 양도증서의 규정이고 필요조건이었다.]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때에 증서를 [양도증서]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므엘의 목전과, 때때 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의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때때 증서를 [양도증서]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었더라.” {히브리 말로 ‘증서’는 문자 그대로 *sefer*, 이것은 ‘책’ 또는 ‘법적인 서류’로써 이곳에서 사용된 ‘양도 증서’를 의미한다.}

오늘 감옥의 뜰이 무엇인가? 지구성 땅이 “구덩이”가 되었다. 그것이 죄의 구덩이다. 이 땅이 지옥이라는 말을 그대가 들어 보았는가? 이곳이 죄 된 세상이며, 이러한 지구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가족이 거하는 장소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힌 바 되었다. 이 세상이 루시퍼에 포로가 되었으며, 그가 사탄이고, 붉은 용이며, 고령의 용 마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유업이 없다. 그가 그것을 못된 꾀로 착취하였으며, 또 감옥의 뜰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유사하며, 사람들이 죄 안에서 감금되었다. 그리고 그가 증서에 증인들의 싸인을 [서명]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야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졌다.

13절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 증서들을 [양도 증서들] 곧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이 때때 증서를 다 취하여 질그릇에 담아..’ 이것이 그대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 여러 날 동안 보관할지니라. [또는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오랫동안...여기에서 잠깐 중지한다. 10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싸인하였다. 11절에서 증서에 율법과 관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함된 율법과 관례로 토지 취급함을 보자. 신명기 6:17,18. “너희는 야 너희 전능하신 분의 계명들과 그 분의 증거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분의 규례들을 열심히 지킬지니라. 너는 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일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야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네가 가서 차지할 것이며” 금후에 어떤 땅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고자 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유업인 새 땅에 가고자 하지 않는가? 야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율법과 관례의 증서가 지구성 땅이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열심히 경청하고; 그분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계시록 12:17절을 우리가 이전에 읽었다, 그 구절로 돌아가면, 그들의 상태가 야의 계명을 지키고 야쉬와 메시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그리고 계시록 14:12절에서 이 말씀들을 반복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야의 계명들과 야쉬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에레미야 32:14절에서 때때 증서를 질그릇에 담아 또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보관할 지니라.”

고린도후서 4:7.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또 그대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없는 것을 내가 실감한다. 그대가 태입이나 인터넷에서 듣고 이것을 다시 흡수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고린도후서 4:7절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 하심이 야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 양도 증서가 질그릇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친애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그 질그릇이다. 고린도후서 1:20-22. “그 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아멘”하고 야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분은 야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내가 한번 더 되풀이하여 읽는다. 고린도후서 1:20절을 다시 읽는다. - “그 분 안에 있는 야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아멘’하고 야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분은 야시니. 그 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보증을 [또는 계약금 지불, 또는 보증금]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이, 보증금이고, 토지의 계약금이다. 그리고 증서는 질그릇 안에서 안전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그대가 이것을 알아듣는가?

에레미야 32:36-44.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야 전능하신 분께서 너희가 말하는 이 성읍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보라, 내 격노함과 내 분노와 진노로 그들을 몰아 내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전능하신 분이 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을 따를 그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워함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41절 “정녕,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므로 그들을 기뻐하리니,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혼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지금 야께서 말씀하신다. 새 땅에 이스라엘이 있게 된다는 약속을 그대가 이해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받은 유업, 그 땅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야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그대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가? 그대가 사탄과 싸운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그분이 신실한 약속을 하셨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한 이 땅에서 밭들을 사게 되리니” 44절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들을 사되 증서들을 [또는 양도증서] 써서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야께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1:10-14. “이는 때가 찬 경륜 [또는 계획]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 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또는 확증]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또는 굳은 약속]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들판은, 지구성 땅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들이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에서 땅에 대하여 말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 황폐한 땅을 - 바벨론 또는 갈대아인들 손에 주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4:23-27.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은 떨고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진동하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도 없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날아갔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비옥한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로 무너져 내렸도다. 이는 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2장에서 에레미야가 들을 산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 간 후 그 곳 소유지에 사람이나 짐승이 없을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구입하였는가? 그 땅이 회복되었는가? 그런 다음 야께서 언제 그분 백성들이 그 땅을 회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그리고 그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야쉬와 자신에 의하여 지구성 땅을 회복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1-6절에서, 지구가 100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여전히 마태복음 5:5절이 성취되었을 때, 그 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5:5절이 말하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사야 65:17, 21-23.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21:1절과 상호-참조문이 된다. 그 다음 건너 뛰어서 21절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가꿔서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야의 복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실현되는 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레미야 32:44절을 재검토한다.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받을 사되,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또는 매매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라...” 또는 증인들을 불러라. {그것에 히브리 단어는, *uwd*, 이 뜻은 “어떤 사람이 증인의 근거가 된다.” 영어로는, “take 취하다, 택하다” 또는 “call 불러서” 증인을 적절한 문법으로 해석함} 내가 작성한 목록들이 이 게시판 위에 있다.

1. - 들을 산다.
2. - 돈이나, 또는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
3. - 타이틀에 양도증서로 싸인.
4. - 타이틀에 증서를 봉함.
5. - 증인들을 택한다. (또는 부른다.)

“넘버 1. - 들을 산다?”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이 새로운 땅이 만들어 진 것과 일치한다. 레위기 20:24.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야 너희 전능하신 분이시라.” 모든 성도들이 죄인들로부터 분리 될 것이고, 또 의인들이 되어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O.K. “넘버 2. - 돈으로”.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유업을 샀다.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야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야께 영광을 돌리라.” 야께서 땅이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므로 -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사도행전 20:28.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야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8,19.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또는 무가치한 언행의 생애]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야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돌려주시기 위하여 희생을 지불하신 것이다.

O.K. “넘버 3. 양도증서 타이틀 싸인”은 어떠한 것인가? 야쉬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7:37절을 본다. 34절로 시작한다.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그분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야쉬와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분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야시와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 야쉬와**” 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것이 그분의 타이틀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야쉬와께서 타이틀을 유업으로 받으셨다. 이 분이 야쉬와: “야” 우리의 구세주 - *Yah-is-our-Savior*, “야” 우리의 구속 주 - *Yah-is-our-Redeemer*. “야” 우리의 구조주 *Yah-is-our-Deliverer*. 유대인의 왕.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바로 그곳에서 싸인하셨다.

그분이 그것에 그분의 피로 분명한 인을 쳤다. 이것이 “넘버 4. - 타이틀에 증서를 봉함”에 해당한다. 갈라디아서 3:15.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또는 약정, 계약] 확정되고 [또는 승인]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 지구성 땅의 양도 증서를 무효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었다. 그 양도증서로 봉인되었다. 고린도후서 1:22.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 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거룩한 영] 보증을 [또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 주셨느니라.” 우리가 계약금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이 매입한 증거금이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양도증서가 질그릇들 안에 간직되었다. 성령이 질그릇 안에서 자리 잡았다.

넘버 5. - “증인들을 부른다.” 에레미야. 32:44절이 말하기를 양도증서를 봉인하고 난 후 그가 “베냐민 땅에서 증인들을 불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토지 거래에서 첫 열매와 증인들로 돌아간다. 에레미야 32:12절에 따르면 증인들이

매매 양도증서에 싸인을 해야한다. 증인들이 양도증서에 “서명하고”, 또는 “싸인”을 하였다. 히브리서 9:15. “이런 연유로 그는 [야쉬와] 새 언약의 [계약]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계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평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을 주목하라; 이 땅 거래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유평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고, 우리가 증서를 받았으므로, 또한 우리가 증서에 싸인을 해야한다. 우리가 증서에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증인들로 부르심 받았으면, 우리가 매입 증서에 싸인하여, 인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로마서 8:16-22.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함께 우리가 야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야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서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야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 분 때문이리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야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들로서 증서에 싸인을 하고, 또 사업을 끝마쳐야 한다. 우리가 야 가족 안에서 우리 이름들을 봉인하여야 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평에 연합하는 것이다... 민수기 26:53-55. “이들에게 그 이름들의 수를 따라 땅을 유평으로 분배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유평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유평을 적게 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에게 계수 된 대로 자기 유평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땅은 제비로 뽑아 분할할 것이니 그들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그들이 유평을 받을 것이니라.”

계시록 7장을 편다. 오 이것이 아주 놀랄만한 것은, 왜 각 지파가 12,000 명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 7:4절이 144,000 명을 말하고 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가 십사만 사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등등. 열두 지파들이, 모두 12,000에 넘버들을 받았다. 그 땅이, 유평으로, 각 지파 인원수에 따라 주어졌다. 그들이 동등한 유평들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2의 숫자는 완성을 상징한다; 그들이 완전히 그들의 유평에 만족하였다. 아무 지파도 다른 지파보다 더 차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유평으로 연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증서에 우리의 이름들을 봉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평이 없다. 우리가 이름에 의하여 계수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평이 없다. 교회 멤버십이 중요하다. 그대는 그대의 지파 가운데 계수 되어야 하며, 회중에 계수 되어야한다.

여호수아 11:23.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평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전쟁이 끝날 것이다! 야쉬와께서 그분의 귀중한 피로 산 유평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전쟁과, 또 지구에 있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전쟁에서 이겼고, 또 그분이 땅에 타이틀을 획득하였을 때, 야쉬와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였다. **야쉬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144,000 명을 증인들로 불러서 증서에 싸인 하도록 하였다. 때가 거의 되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편 37:29. “의인은 땅을 유평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의인이 땅을 유평으로 받을 것이다. 의인이 하늘 가나안 땅 아름다운 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야의 계명을 지키고, 야쉬와 메시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리라. 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무엇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였는가? 창세기 17:1-8. “아브람이 구십 구 세였을 때 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El Shaddai, 일 쉬아다이’ 전능한 분이라.” (영문) 우리가 조금 전에 무엇을 읽었는가? “너희는 야, 전능하신 분의 증인들이라.” 우리가 실제적인 증인들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대단한 방법으로 나타내므로 다른 자들이 그것이 참 됨을 알 것이다. 그분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능한 ‘야’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여기에서 나타내었는가?]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3:17절을 참조로 한다.

3절 “아브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또는 많은 가족들] 아버가 되리라.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가족들] 아버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분께서 그가 많은 가족들을 보기 전에 좌우간 그의 이름을 바꿨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승리를 보기 이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금을 주셨다. 우리가 아직도 시험 기간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6절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네 씨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씨의 전능하신 분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전능하신 분이 되리라.”

누가 씨인가? 갈라디아서 3:16.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그 씨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우리가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유업에 합하였다. 지금, 이것을 보라. 언제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죄인으로써, 우리가 전적으로 유업 밖에 있었다. 구속에 경륜을 제외하고는 - 우리가 결코 씨의 부분이 될 수 없었다. 인적이신 구원자를 제외하면, 유업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유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업에 함께 연합하였다. -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유업을 나누신다.

우리가, 죄인들이었다; 그분, 절대적인 분이, 하늘에 영광을 버리고, 그분 자신이 치욕의 대상이 되셨다. 그분이 죄인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았으므로,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가 증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만일 필요로 한다면 피로 기꺼이 쓰지 않겠는가? 계시록 12:11.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씨였다. 이 연구가 그대에게 한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하여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공로에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또는 어떤 길로도, 영원한 유업에 공로를 가질 수 없다. 베드로전서.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야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대가 알다시피,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루시퍼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죄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 새로 태어나서, 그분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 우리가 야의 가족에 양자로,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여졌다. 지금,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새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가족의 일 부분이 되어야 하고; 또 새로 태어나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고, 그 다음 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가족에게든지 우리가 일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 가족이다. - 이것이 그대의 지파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말씀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3:9. “야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야의 씨가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야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안에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보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만일 씨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야께로부터 태어났으면,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야에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후에.” 그대가 서약한 후에, 땅을 위해 부분적인 지불을 한 후에, 그대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대가 내 증인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 때 부분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며, 우리가 남은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유업을 분배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증서를 앞으로 가져 와야한다. 증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증인들이 불려졌다. 어디에 그들의 서명이 있는가? 우리의 생애가, 참된, 서명들이다. 우리의 삶에 생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성품이, 우리의 서명이다. - 그것이 ‘영’으로다. 그러나 글씨로는 교회 멤버십을 명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이 새 땅 증서에 그대가 싸인하는 곳이다. 두 증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부분을 연구할 때 그것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야와 어린양에게 144,000 명이 증인들이며 첫 열매들이다. 계시록 14:4,5.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들이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증인들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어린양과 함께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첫 열매들은 그 씨로부터 추수를 위하여 작정된 것을 완전하게 상징한 것이다. 모든 씨가 그것들 자체에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고 추수에 이른다.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모든 씨가 추수 때에 그것 자체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씨가 열매를 맺어 추수된 144,000 명이 증인들이다. 그들이 참된 “여호아 증인들이다.” 그들이 완전하고 또, 야의 능력에 힘입은 증인들으로써 완전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들이 그들 생애에서 성령의 능력에 경험을 가진 증인들이다.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만형, 그들의 친족, 구원자이신 야쉬와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 {요 8:29. 보시오.}

이 증인들을 좀더 엄밀히 보자. 계시록 17:14. 그리고 넘버 5. 부분에 더욱 많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두 부분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내가 희망한다! 내가 이 연구를 즐겼다. 계시록 17:14절에서 바벨론의 악함을 말하고 있다: “이들이 어린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그분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144,000 명이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택함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을 분류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서 어떤 “부르심”을 본다. 에레미야 32:10.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불러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증인들이 입회하도록 부름 받았다. 마태복음 4:21,22.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야쉬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잡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 두고 주를 따라 가더라.”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분을 따라 갈 것이다.

골로새서 3:15. “야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많은 몸들로 그대가 부름 받지 않았고,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 메시아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대는 우리의 만형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그대가 이스라엘의 씨로, 약속의 씨에 부르심을 받았다. 야쉬와의 가족으로 그대를 부르셔서, 그대의 지파에 합류하도록 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2:12.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야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쉬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 고 하였다. 그분이 그분의 영광,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넘버 5. “택함” 사도행전 10:41절에서 증인들이 선택되었다.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야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한 것이니, 곧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피와 몸을 먹고 마셨다.

야쉬와의 가족으로써 새 달 (New Moon) 절기에 우리가 모인다, 그리고 우리가 식탁에 (상징적인 면에서) 앉아서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가족으로 선택되었고, 야쉬와의 증인들이 되었다. 신명기 14:2. “이는 내가 야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요, 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 [가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거룩한 백성을, 야의 소유로 택하셨다. 요한복음 15:16.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야쉬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가족] 그에게 속한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넘버 5.에서 지적한 것은, 이 증인들이 “신실한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계시록 17:14절에서 세 요점이 있다: 부르심 받았고, 택함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다. 잠언 14: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 뱉을 것이다.” 계시록 14장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계시록 14: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그 뜻은 그들이 신실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계시록 1:5. - 여기에서 씨가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된다. 계시록 1:5.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야쉬와 그리스도...” 야쉬와께서 신실한 증인이며, 그분이

씨다. 그분의 자손이, 그분의 유업에 - 일부분이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분과 같은 부류에 신실한 증인들로 열매 맺는다. 이사야 8:1. “또 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펜으로 마헬살랄하스바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길다.] 관하여 쓰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등등.

디모데후서 2:2.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그것을 알았는가? 우리가 신실한 남자가 되고 또 신실한 여자가 되며 또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야 하며, 또 야쉬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다른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증인들이 영원한 유업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 도처에 있는 그들의 각종 지파들 가운데서 또는 교회들에서, 그들의 싸인에 의하여, 그들이 야의 전능하신 능력의 증인으로써 회중 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싸인하는 것은, 그분이 속박된 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더 좋은 땅에 유업을 갖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늘 가나안이고 또 새롭게 된 땅이다. 그대가 어디에 있던지 이 세상 도처에 있는 그대가 야의 가족으로 연합하도록 우리가 그대를 초청한다. 144,000명에 증인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야 그분 자신에 의하여, 창조 SDA 교회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가족이 세워졌다. 우리 이름의 숫자대로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요구할 수 있는 하늘 가족과 연합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증서에 싸인하지 않겠는가?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빛을 발산하여 주심에 아주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금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주디아,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쉬와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설교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의 능력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에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생애를 우리가 증언합니다.

우리가 야의 영 안에서 매 순간 행하므로 승리하여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것들의 끝이 올 때까지 계속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야쉬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5장: 두 증서들 - 2001년 4월 6일

창조 SDA 교회(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주최로 2001년 누룩 없는 빵의 절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01년 4월 6일,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에 주제는 “야깨 거룩함”입니다. 오늘 손님 벨리즈에서 온 형제, 데이비드 에글러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 주 템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쉽에 대한 5장을 우리가 연구할 때 그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매 주에 우리가 이 연속 강연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알맹이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것이 한 부분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를, “글쎄 우리가 두 부분들을 더 해야할 것이다.” 각 주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해야할 것이다.” 고 하였다. 나는 5장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6장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7장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연구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지 누가 알 것인가?

교회 멤버쉽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 내가 일찍이 짐작한 것보다도 더 더욱 중요하다. 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아주, 아주 자비롭게 축복하셨으므로 내가 기쁘다. 지난 주에 연구한 것을 엄밀히 조금 검토한다. 여기에서 내가 대단히 높은 요점을 기억한다. (내가 나의 메모를 조금 더 검토하여 그대에게 가치가 있을 어떤 것이 있는가 보았다.) 우리가 먼저 에레미야가 친족의 들을 산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체에 상징으로 적용된 것은, 그분이 그분의 귀중한 피로 지구성 이 땅을 되사신 것이다.

우리가 읽은 것을 상기하면, 증인들이 부르심을 받아 매매 증서에 싸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서들을 절그릇들 속에 저장한 것이다. 실제로 그 두 증서들이 - 봉합한 증서와 또 봉합하지 않은 증서로써 - 그것들이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절그릇 안에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더할 나위 없이 그것이 영원한 소유와 대등하고, 또는 지구성에, 영원한 유업과 대등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유업에 보증금, 또는 계약금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였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아 야의 증인들이 되었으며, 전능하신 분에 증인들이 된 것이다. 그대가 아는 것과 같이, 지구성 이 땅에 의혹이 있다. “누가 전능하신 분인가?” 루시퍼가 맨 먼저 다투었고, 또 그가 맨 먼저 대부분에 사람들 마음 속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으로 야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 하여 우리가 야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 문제에 결론은 144,000 명이 십자가에서 야쉬와 자신에 의하여 증서에 날인한 증인들으로써 지구성 땅 소유지 증서에 싸인한 자들이다. 우리가 무엇에 싸인하라고 부르셨는가? 우리가 두 증서에 싸인하여야 하며,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한다.

우리가 재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이며, 또한 약속한 유업을 이을 정당한 상속자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144,000 명에 대한 진상을 더욱 깊이 논의한 것은 그들이 야와 어린양에게 첫 열매들이고 또 그들이 신실한 증인들이다. 데이비드 형제여, 그대가 지난 주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 그대가 모은 정보가 있으면 {녹음 테입으로부터}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 있는가?

데이비드: **yes.** 지파들이 그들 숫자에 의하여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에서 “고통 하는 종”에 대한 구절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증보를 하였음이라.” (이사야 53:12.)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고,” 또 그 결과 그분이 그들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분이 죽지 않았어야 할 분이...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마가복음 15:28.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글자 그대로 양쪽 다 실행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두 강도들 사이에 놓여졌고 그분과 함께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그분이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칙” 목사: 그러므로, 유업을 받은 모든 자들이 헤아려지고, 또 이름에 의하여 계수 된다. 그대가 알아차린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읽은, 단어 “야쉬와 Yahshua”는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그대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야의 말씀이다. 야쉬와는 야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읽은 비문,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머리 위에 타이틀이: **야쉬와, 유대인의 왕.**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몇 가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먼저 우리가 의문점이 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에레미야 32:11절과 14절에 왜 두 증거가 있는가?” 에레미야 32:11절과 14절에 두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에레미야 32:11. “그리고는 내가 매매 증서를 취하여”(영문) 이것이 매매 증서이며, 또 내가 좋아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 표현법이: 매매 증서다. “... 둘 다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이며”(영문) 또 우리가 말한 율법과 관례에 뜻은 규정들과 필요 조건들이다, “...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증서다.” 건너뛰어서 14절 “만군의 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 증서들, 곧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 증서를 다 취하여 질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할 지니라.”

OK. 내가 기록한 표제를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매 증서들과 매매 증거이다. 내가 기록한 이 표제 아래 넘버 1. - “증서에 봉인,” 또는 “증거에 봉인,” 그 다음에는 넘버 2. - “봉인하지 않은 (열려진 -영문) 증서,” 또는 “봉인하지 않은 (열려진) 증거,”가 있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아주 감동이 된다, 왜냐하면 그제 밤에 야께서 3시경 나를 깨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연구하라.” 그 이유는 이 증서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데이비드 형제를 태우고 올 때 이것에 대한 대화를 조금 나누었다, 또 그가 말하기를, “그대가 알다시피 이 증서들이 무엇인지 왜 그대가 나에게 언급하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간단한데 - 내가 몰랐다!”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주 쉽고, 또 이것이 아주 아름답다. “봉인”에 단어가 근본적인 언어에 뜻은, “끝내다.” “봉인하지 않은,” (열려진) 뜻은 “드러내다 또는 노출하다.”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끝내다.”를 성경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자. 다니엘 9:24. “칠십 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를 끝내다-영문)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쁨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에서 70주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예언인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에 관하여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고, 그분께서 죄를 종결하시고, 죄악들을 끝내시는 것이다 -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지금 이것을 보라: “예언과 계시를 봉합하라.” 이것이 야쉬와 그분 자신, 그분의 말씀 - “야쉬와”께서 - 봉합 된 증서이다. Yah-Is-Salvation - 야는 구원자시다. 봉합 된 증서가, 야의 말씀이다.

OK. 그것이 아주 간단하다, 우리가 봉인된 증거에 대하여 더 이상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봉인하지 않은 (열려진) 증거를 보자. 봉인 된 증거는 다 이루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봉인하였다. - 유업을 샀다. 지금 그것을 질그릇들 안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봉인되지 않은 (열려진) 증거가 또 있다, 그것을 질그릇들 안에 넣어야 한다. 레위기 18:6절이 드러냈거나 또 벌거벗은 것을 관련한다. 드러내거나 또는 노출된 것이 열려진 증서에 관계가 있다.

지금 그대가 그대의 영적인 안경을 쓰고, 그대의 두뇌를 열어서 야께서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 지능을 조금 사용하여야 한다. 레위기 18:6.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야니라.” 이 율법에 있는 글이, 가까운 친족을 글자 그대로 벌거벗겨서 드러내게 함을 반대하는 금지령이다. 법이 근친상간을 반대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그대의 영적인 안경을 써라.

이것이 오직 글씨로만 우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역시 영적으로도 적용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에 벌거벗은 수치를 노출하여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기세를 말하는 것이다. - 이것과 비슷한 것은, 만일 한 남자가 무의식중에 그의 바지 지퍼를 닫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무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소리쳐서 ‘어이, 그대 바지에 지퍼를 닫으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형제에게 가서 그에게 속삭인다. ‘..그대가 지퍼를 닫아야 할 필요가 있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무안함을 폭로하려고 회중 전체 앞에서 공고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이, 만일 사람이 무의식중에 행한 어떤 창피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죄를 공개 발표하여 무안하게 하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야쉬와께서 고통 하신 것을, 데이비드 형제가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이 바로 그곳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다 - 이는 죄의 수치와 모든 죄인들이 가진 무안함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단행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이 당하는 수치와 무안함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 명확한 이유 때문에 구주께서 우리에게 단계적인 복음에 질서를 주셨다. {마태복음 18:15-18절을 보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두 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대가 그에게 그 잘못을 다시 알려 주라.’ 지금 그대가 편견을 가진 증인들을 갖지 않았다. 그대가 동료에게 가서 ‘어이’ 내 편이 되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채찍질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도가 절대로 아니다. 그 의도는 바로 어떤 증인들을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사실을 입증하게 하고 또 그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그대가 두 번째 단계로 복음에 질서대로 행하였을 때 아직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 앞에서 말하여, 그것을 알게 하라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단계에서 어떤 수치스런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을 {1}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반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보건대, 회중 전체 앞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우리가 회중 앞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지금, 봉인되지 않은 (열려진) 매매 증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하여 최종적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더욱 깊이 이를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가 감추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솔직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허물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또는 여인들에 잘못들이나, 또는 연소한 사람들에 잘못들까지도 쓸데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음 성경말씀은 예레미야 49장이다.

예레미야 49:10. 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벗겼고 내가 그의 비밀스런 자리들을 들춰냈으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으리라. 그의 씨와 형제와 이웃들이 멸망 [또는 과멸] 하였어도 그는 아니라.” 누가 우리를 벌거벗겨 놓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야 앞에서 자진하여 벗었는가? 우리가 야 앞에서 자진하여 솔직하였는가? 그것이 의문이다;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분 마음 속에 열려져 있어서, 그것들을 그분이 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12-15. “야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것이, 생명이 있다.]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찢러 가르고 [또는 나누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 [또는 심판할 수 있는] 하느니라.” 야의 말씀, 야쉬와는, 그러한 감화력이 있으시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계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야의 아들 야쉬와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또는 단호히] 붙들어야 하리라.”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 - 우리가 이것을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한층 더 나타내면, 이 사상은 벌거벗겨졌거나 벗은 존재이며, 또는 솔직한 (열려진) 사람이다, 우리가 창조 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창조 SDA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인용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 2:25절에서 아담과 이브, 부부를 말하고 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만일, 지금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여기에 와서 점잔빼고 걸으면, 어떤 사람이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벌거벗었는데도 으스스대고, 그들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그 누군가가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죄 없는 몸가짐, 상태로 창조되었다. - 죄 없는 상태로써 그들이 벗은 수치가 없었다. 그들이 빛에 옷으로 씌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빛에 옷은 그리스도의 의였다. 그리스도의 의. 그들이 결혼 예복으로 옷 입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야와 야쉬와와 개인적으로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 예복을 입었고, 또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솔직하였다. 그들이 서로 솔직하였고 또 아버지와 아들에게도 솔직하였으며, 또 모든 우주 하늘에게도 솔직하였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 (열려져 있음) 하였다. 이것이 아주 중대하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144,000 명에 신실한 증인들이 첫 열매로써 그 상태로 돌아 갈 것을 그대가 아는가? 이것이 야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 하는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취하여... 그분이 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성도들로 만드신다. 그분이 그들을 벗기실 수 있으며, 그들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3:7.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덮개] 만들더라.” 그들 자신들이 덮개를 만들었다. 야게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는가? 야게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들 자신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었다.

그들이 지시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이 결코 그러한 덮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야게 신실하게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이 벗은 채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야의 지시를 반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동기가 되어, 그들 자신들이 실재로 벗은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어떤 것으로 덮어 가리워야 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빛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갈까?” 이러한 표현을 일찍이 들어 본적이 있는가? 그 뜻은, 그것을 솔직하게 하자, 그것을 숨김없이 하자. 야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어떤 것들을 간직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 어디에선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것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온다고 한다.

비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우리는 비밀이 없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회담하러 들어 갈 때 그곳에 어떤 천사들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남편들과 아내들이 회중 앞에서 그들의 사적인 대립을 누설하지 않는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는 이유는 권위와 목적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지금 죄인들이므로, 그들 자신들을 덮어 가리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들 자신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가리웠다. 내가 그대에게 이것을 말한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덮어 가리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지라도... 그대 자신을 덮어 가리지 말라.

그대가 어떤 잘못을 무의식중에 행하였다고 말하자. 우리가 고의적인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개심하였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무의식중에 무엇인가를 잘못하였으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또 그대자신을 가리우기 시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 그것이 무화과나무 잎이다. 나의 형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생애를 적절하게 나타내어 말하는 것은, 참으로 죽은 것이며, 또 당치않은 가리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가짜 옷이다. 그것이 하나의 가짜 ‘의’이다. - 그것이 ‘자신의 - 의’이다. 자신을 정당화함이 자신에 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심중에 어떤 잘못을 하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빛으로 가져가라 - 빛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것을 야의 불로 가지고 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바로 태울 것이며, 또 그것이 소멸된 것을, 그대가 볼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란다. 그것이 불가분 우리가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길이다.

심판을 피하여 그들 자신들을 덮어 가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대속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날에 살고 있다. 우리가 솔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만일 우리 얼굴에 흙이 조금 묻어 있음을 다른 자들이 알아차리고 우리를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으면서 보좌 앞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확실하다. 야게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다. 구원의 옷은 야 앞에서 실재로 벗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항상 벗은 상태에서, 또 ‘의’ 안에서 교정과 교훈으로 마음이 열려져 있다.

지금, 만일 어떤 자가 그대에게 와서 그대를 학대하면, 만일 어떤 자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그대의 영적인 식별력이 있을 것이다. 그대가 학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야쉬와게서 십자가에 달리기 훨씬 이전에 그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원한 것을 그대가 기억하는가? 그들이 그분을 죽이기를 피하였고, 또 그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그분을 은밀하게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는 그분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또 만일 어떤 자가 그대의 지배자가 되기를 추구하여도, 아직도 그대의 때가 되지 않았다.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학대를 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우리의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벌거벗겨지고 또 알몸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이 우리에게 창피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솔직함에 아주 익숙하여서 찬송과 찬미로 노래할 것이다. 바로 개혁자들 시대에 그들이 화형 주에서 태워질 때, 그들이 야게 찬양과 찬미에 노래를 불렀다. 할렐루 - 야

욥기 1:21.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 몸으로 그리 돌아 가리이다. 주신 분도 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야시니, 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왜 욥이 그의 고난에서 성공하였는지 그대가 아는가? 욥이 벌거벗음에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야 앞에서 완전히 벗고 있었고, 또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벌거벗은 것과, 또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벌거벗을 것이므로, 그 중간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창조 시에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이 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어떤 다른 날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일관성 있게 계속될 것이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증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전도서 5:13-15. “내가 해 아래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재물이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그가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대가 재정상으로 소중히 간직할 재보에 벌거벗었는가? 그들이 야 앞에서 솔직한가? 그대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저축하는가? 그대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그대가 어둡고, 곤궁할 때가 올 것이 두렵고 그대가 이 재산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벌거벗고 떠날 것이며; 그대가 무덤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승천할 때에도 벌거벗고 갈 것이다. 그대는 벌거벗고 갈 것이다. 왜 그대가 돈을 취하여서 그것들로 자신을 가리우며, 금과 은으로 그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그대가 금과 은이 아닌, 어린양의 귀중한 피로 산 바 되었다. 지금 왜, 그대가 그대의 재산을 야의 아들에게 자진하여 돌려드리지 못하는가? 자만심이다. 자만심이 그대 자신을 은과 금으로 보호하므로; 그것이 쓰라린 악이 되고, 무익한 것이 된다. {말라기 3:8-12, 학개 1:1-10, 보시오.}

고린도후서 4:18.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일시적인]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만일 그대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는 야쉬와를 바라보고 있다. 고린도후서 5:1-5.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그것이 질그릇] 무너지면 야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녕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을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또는 준비] 분은 야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또는 계약금]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유업을 안전하게 하였다. 그분이 안전하게 하신 것은 하늘 집이다. 그분의 소유지를 안전하게 하였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 봉인된 증서다.** 무엇이 **봉인되지 않은 (열려진) 증서인가?** 무엇이 **봉인되지 않은 증거인가?** 우리가 **영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봉인된 증서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을 그대가 알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그녀의 질그릇 안에 **봉합된** 증서가 있다. 야쉬와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 {히브리서 2:9절을 보시오.} 그들이 빠뜨린 것이 오직 **봉인하지 않은 (열려진) 증거**이다. 그들이 빠뜨린 것이 유일하게 **봉인하지 (열려진) 않은 증서**이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들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SDA 교인으로써 계시록 3:18절,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다. 이것이 라오디케아 미지근한 상태를 치료하는 구절이다. 계시록 3:18.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금은 불 속에서 연단 됨을 기억하라.]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벌거벗은 것은 OK다, 벌거벗은 것이 선한 것이다. 그대가 흰옷을 입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야께 벌거벗은 것이다.

그대의 벌거숭이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라. - 바꿔 말해서 어떤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SDA 교회 대총회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의로 가장하여 행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박해를 감추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벗은 수치가 드러났으며, 또 그들의 벗은 수치가 드러날 것을 대비하고, 그들 자신들을 감추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엮어 만들어 입은 것을 벗기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들이 가능하면 옷 입는 것이 소망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옷을 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수치를 그들 자신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옷을 벗겨야 할 것이다. {레위기 18:6절에서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참된 옷을 벗기지 않으나, 무화과나무 잎들로 만든 가짜 옷을 벗긴다.} 우리가 이것을 친절한 방식으로 행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대가 무화과나무 잎들로 만든 옷을 입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음을 내가 본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대가 벌거벗었는가? 그대가 수치스러운가?”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에 결혼 예복으로,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솔직할 수 있고, 또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이 계시록 3: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네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우리가 거룩한 영의 통찰력을 본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교회) 두 눈이 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또 두 눈이 몸(교회)에 있다. 그것들을 “두 증인들”이라고 일컫는다. 그대가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 일컬음을 언젠가 들어 본적이 있는가? {사무엘상 9:9.} 그들이 그대를 위하여 “본다”, 그들이 그대의 눈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교회) 안에서 그대가 선견자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 움직임에서, 무엇이 오는 가를 보는 두 눈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돕고 경고할 것이다. {계시록 11:3.} 성령의 통찰력과, 예언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이(교회) 살아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몸(교회)이다.

야쉬와께서 이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신다. 그대의 노력과, 시간, 재능, 금전,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것들을 낭비하면 실망할 것이다. 계시록 16: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대의 옷을 지키라는 뜻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빛 밖으로 한 걸음도 내 딛지 말라. 빛 가운데 거하라; 그대의 결혼 예복을 계속 입고 있어라. 만일 그대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도망가서 숨지 말라. 그대의 옷을 계속 입고 있어라.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만일 어떤 사람이 그대를 비난하면, 정죄로 받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그대에게 잔인한 말로, “오, 너는 이것이 서투르다” 또는 “네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이 야에게 되튀어서 떨어진다. 그것이 먼저 야쉬와를 통과하여야 그대에게 오는 것이다. 정죄로 받지 말라; 그대의 옷을 입고 있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강건하고 담대 하라, 야쉬와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 그대가 시련에 빠졌을 때, 그대가 고심할 때, 이렇게 외쳐라: “야쉬와께서 유대인에 왕이시다!” 승리가 그대의 어깨 위에 고정 될 것이고, 하늘 성소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께서 그대 자신을 태어난 어린양과 같이, 안고 계심을 그대가 볼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용기이며, 어떠한 격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SDA 교회와 비교되고, 또 참으로, 교황정치 제도에 길을 따르는 어떤 교회든지 비교가 된다. 여기에서 교회 멤버십이 적용될 것이다. 지금 출 32장 전체를 읽는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 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주조한 송아지는 교회와/국가에 연합으로써 대총회가 가입한 사단 법인과 같다.]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조각 용구, 여기에서 교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함이(Trade Mark) 일어나려고 한다.]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오. 명성과 변영. 명성과 영광, 큰 부자들. 이러한 것들을 좇아서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이 전락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그들과 야와 관계를 잃어버린, 그 보답으로 아마 세상 모든 정부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안식일”이다. 인간의 안식일, 왜곡된 안식일을 - 선언하였고, 이것이 전능하신 분에 의하여 선언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권력에 의하여 선언 된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 일요일 준수일 수 있고, 또는 그것이 어찌면 SDA 교회: 대총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명절이 바알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야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안식하는 안식일이 없다; 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히브리서 4:9,10. 시편 112:1절을 보시오.}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세속적인 교회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행위들 그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그들 자신들: 영문) 부패하였음이라.’” 먼저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 백성들이며 그들 자신들을 부패케 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또는 세상과 연합으로]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그것에 모든 능력을 바치고]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그들에 모든 토지들과, 십일조, 헌납, 재능들, 노력들을 바치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증대하여 [일어나서: 영문]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야 그의 전능하신 분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야께서 위대한 능력과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오. 개혁 운동이 얼마나 위대하였으며, 또 SDA 교회가 야의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능력있는 성체였다.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야께서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씨가 그리스도]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이 약속한 땅이다.

“야께서 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둘 판들은 야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야께서 둘 판에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분의 인침이다]. 백성들이 소리치리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힘내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노래한다. 교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참된 교회다, 우리가 참된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릇된 교파심과, 성경상의 진리에 개념으로 조직된 교회의 몸, 둘 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파심이 없다고 하여 길 옆 다른 측면 도랑에 빠진,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고정된 타당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옳은 자가 없다.) 그들이 바로 혼동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 바벨론이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144,000 명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다른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자들이다.

19절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오늘 축제 예배 운동이 있고, 카리즈메틱 운동이 있다. 카리즈메틱 운동: 무아지경에 도취하는 종교적인 경험과 즉석 치료를 포함한 방언을 말한다.]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둘 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이것이 깨진 언약을 상징한다. 교회들이 십 계명을 거절하므로 언약이 깨졌다. 교회들이 개혁을 중단하여 언약을 깨었다. 교회들이 세속적인 국가들과 연합하여 조약을 맺었으므로 (예를 들면, SDA 교회 대총회, 고대 유대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언약을 깨었다; 그들이 더 이상 교회 멤버들이 아니다. 그들이 질그릇 속에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넣지 않은 것이,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더 세부적인 연구를 거의 끝날 때 하기로 한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계시록 3:18절에서 야쉬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이것을 들어 보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였다.

출애굽기를 손가락으로 붙잡고, 계시록 14:8-20절을 본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가족들] 그녀의 음행으로 [바알과 함께, 금송아지와 함께 음란을 행함]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다.’ 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전능하신 분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이 가담한 그들의 사단법인으로, 그들의 교회가/국가와 연합한 것으로, 이 세상 것들을 위한 그들의 반란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그 가루가 섞인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32:21.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것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악에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야쉬와께서 지체하시지 않는가? 야쉬와께서 오심이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오. 그분께서 오심을 지체하고 있다. 내가 추측컨대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건물을 아주 잘 건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왕국을 아주 잘 만들어서, 춤추고, 파티하고, 쾌락을 즐기자, 왜냐하면 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우리를 분향으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다른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승리를

잃어버렸다.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는 대신에, 그들이 이 세상을 그들의 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만일 그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함이 더 좋을 것이다.]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금으로 연단 한 것이 송아지였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것은 가짜 증거다. 그것이 지구성 이 땅에 가짜 증거다.

재림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 “Seventh-day Adventist®” 교회는 가짜로 봉인 된 것을 그들이 **봉인하지 않은 증서** 위에 기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봉인되지 않은 증서가 봉인되었을 때 그것 위에 기록될 이름을 그대가 아는가? “창조 SDA 교회”가 시련 기간이 끝날 때 봉인하지 않은 증서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봉인 될 것이다.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때에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것이 우리의 기별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누가 “야” 편인가? 내게로 오라.’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야, 전능하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에스겔 9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설명한다.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 날에 백성 중에서 약 삼천 명이 쓰러지니라.” 그대가 이전에 “삼천 명”이라는 문구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교회에 삼천 명이 더하였을 때가 오순절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다. {사도행전 2:41.} 늦은 비 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삼천 명이 더해질 것이다. 출애굽기 32:29.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너희는 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하면 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야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아마]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야쉬와께서 타락한 교회들의 멤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와 언약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인침을 통하여 - 창조 SDA 교회 이름을 통하여, 내가 그대와 새 언약을 할 것이다. 내가 그대를 인도하여 확실한 언약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것이다.”고 하신다.

“모세가 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라도 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야께서 기록하신 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어느 천사인가? 계시록 18장 4째 천사다. 계시록 18장에 능력있는 천사가 새 언약의 코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간다. “...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야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엄습할 것이다. 그대가 우리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이 타락한 교회들에서 나와야 하고, 야 백성들과 연합해야 하며, 또 교회 멤버십의 봉인하지 않은 증서에 싸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야의 계명들과 야쉬와의 믿음으로, 야와 그분의 아들에게 그들의 약속으로 그들의 언약서에 인을 쳐야 한다. 그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재 침례를 받아야 하고 또 다시 개심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 위에 계명들이 기록되고, 그들이 승천에 적합하도록 인침 받게 될 것이다.

야쉬와의 말씀 마태복음 21:43,4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야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가족]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금송아지가 빵아져 가루로 된 것을, 기억하라.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반석, 돌이 떨어져 나간... 다니엘을 보자. 다니엘 2:44. - “이들 왕들의 때에...” 이것은 형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큰 형상이 열 발가락들과, 그 발가락들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것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야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그것이 오래 동안 존속될 것이다. 그것이 질 그릇 속에서 안전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이 때는] 앓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영원한 유업이 마침내 정당한 상속인들 위에 있게 될 것이다. 45절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을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바로 야의 손에 의하여 시온산에서 잘라져 나온 돌이 있고, 또 그 돌에 법이 새겨져 있다. - 그들이 인침 받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이다. 그들이 144,000 명이다. 그들이 돌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영원한 왕국이 돌로 창설되었을 때 복음에 신실하지 않은 조직체들이 부서질 것이다. 교회와/국가에 연합들로 그와 같은 대총회 사단 법인이,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에 타입으로써, 이러한 모든 조직체들이 시온산에서 나온 돌 144,000 명에 의하여 빵아져 가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28:24. “야께서 네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네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네게 내리리라.” SDA (Seventh-day Adventist®) 교회 대총회가 성령이 퍼부어짐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들 위에 티끌이 내리고, 메마르고 불모의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야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와서 값없이 마셔라. 그대 앞에 승리가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으라; 늦은 비를 받으라.” - 우리가 하늘에서 온 능력, 늦은 비를 받고 있다. 계시록 18장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우리 위에 있다. 우리가 그 상쾌함에서 비켜 나가지 않도록 하자.

늦은 비 성령이 이 지구성에 있는 각종 교파들에게 퍼부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이스라엘 지파들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 오직 “야” 가족이 -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49:1-10.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심이 여기에 있으며, 지금, 우리를 여기에서 부르신다. “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름으로 계수 된 것을 기억하라. “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날 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갈아서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야께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완전히 헛되었고, 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야께서 야굽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흩어진 가족의 멤버들을 데려오신다.]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전능하신 분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굽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봉인하지 않은 증서로 (펼쳐진 증서)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데려오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간다.] 이스라엘의 구속주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야께서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임이라.”

“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또는 땅을 보존하여]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대 자신들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대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라, 그대 자신들을 솔직하게 하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높은 곳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이다; 그곳에서 그들을 먹일 것이다. -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비록 티끌 가루가 도처에 내릴 지라도, 그들이 늦은 비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오. 여기에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많이 있다. 144,000 명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들 지파들 안으로 모을 것이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대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봉인하지 않은 증서**가 **봉인하지 않은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증언이, 증거가 된다. 그렇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히브리서 11:1.) **봉인하지 않은 증서**가 시련 기간이 끝 날 때까지 여전히 봉인되지 않게 될, 이유는 떨어져 나갈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펼쳐져 있다; 아직도 봉인되지 않았다. 야쉬와께서 봉인된 분이시다; 시련 기간이 끝나고 봉인이 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증서가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야쉬와의 말씀으로, 또 야쉬와께서,

봉인한 증서를 만드신다. 우리가,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서약한 언어를 {에베소서 4:30.}우리 교회 멤버쉽 기록부에서 볼 수 있으므로, 펼쳐진 (봉인하지 않은) 증서가 되어, 시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닫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계시록 7장을 읽고 끝낸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망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또는 분쟁의 바람]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 계신 전능하신 분에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분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것이 인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다. 모든 지파들이 교회 명부에 그들 이름을 싸인할 때까지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가 십 사만 사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의 이름으로, 또 지파들을 통하여 가는 인침이다. 각 지파들이 12,000 명이고, 그 다음에 9절 – “이 일 후에...” 오. 그런데, 12,000 명의 각 지파들에 뜻은 각 지파가 동등한 유업을 갖게 됨을, 기억하라. 어떤 지파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지만, 야께서 셀 수 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의에 옷]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승리]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전능하신 분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또는 그렇게 되어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전능하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주소서.]’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전능하신 분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 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야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야.쉬와

자신의 의에 일들로 자신들의 방패를 삼고 노력한 자들은 위대한 흰 보좌 앞 심판에서 벌거벗게 될 것이다.- 그대가 보는 위대한 흰 보좌 앞에서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이 우주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허락하여 야께 마음을 열어 그분의 불같은 사랑을 태울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위대한 흰 보좌 앞 심판에서 멸망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그대가 야로부터 숨을 수 없다. 왜 솔직할 수 없는가?

죄인들이여, 그대가 나의 말을 들으면, 야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와서 솔직하라, 내가 너의 아빠다. 나에게 달려 오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옷을 줄 것이다. 너의 죄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결혼 예복을 입혀줄 것이므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고 하신다. 야께서 구원자시고, 또 교회 멤버쉽이 중요하다. 야쉬와의 봉함된 증서가 우리의 침례 서약서에 있는 기록들이다. 우리 교회 멤버쉽 기록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우리가 약속하는 봉인되지 않은 (펼쳐진) 증서이고, 이것은 시련 기간이 끝날 때에 인침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대의 지파 이름으로 그대가 도시의 대문들을 통과할 것이다.

다음 집회 때 6장으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야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빵과 물이 확실함께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산하고자 야쉬와의 거룩하고 소중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쉬와. 아멘

{1} 부록 B를 보시오.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6장: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 2001년 4월 28일

오늘, 멤버십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한다. 지난 번에 우리가 고려한 것은 교회 멤버십이었다. (내가 상기하기로는 두 주일 전이다.)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5장을 검토한다. 5장에서 두 질문을 하였고, 우리가 응답하였다. 첫째 질문이, “에레미야 32장에서 우리가 어떤 증서들에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가?” 또 “에레미야 32:11, 14절에서 왜 두 증서들에 목욕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언약을 꽤 많이 적용하였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참된 진리에 대하여 꽤 많이 해명하였다.

봉인된 증서가 있고, 또 **봉인되지 않은 (열려진) 증서**를 언급하였다.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에 관한, **증서를 봉인**하여 완전하게 하였다. 구주께서 구속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증인들이며, 이는 **봉인된 (인치는) 사업**이다. 이것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신성에 의하여 봉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봉인된 증서**에 우리가 한 싸인이 우리를 영원한 유업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아직도, **봉인되지 않은 증서**가 있다, 이것이 아직도 봉인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이 인간에 시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봉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봉인되지 않은 증서**는 우리가 야를 최고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 성화 사업으로 증인이 되며 교회 멤버십 언약에 우리의 개인적인 싸인이 글씨로 증인됨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봉인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의 완전한 연합 안에서 야의 가족과 합류하는 것이다.

인류의 시련 기간이 끝날 때 **봉인되지 않은 증서**가 봉인될 것이며, 그 봉인된 증서에 증인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어린양의 생명 책에 그들 모두에 이름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간단한 표현으로, **봉인된 증서**가, 신성 안에서 고정되었으므로 조사심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인간 안에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누가 구름 같은 증인들과 연합할 것인지 엄밀히 심사하여 보는 것이며, 또 그들이 증인들으로써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을지 보는 것이다. 끝까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13.}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멤버십 6장을 시작한다. 교회 멤버십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가족 계보이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 무엇이 “계보”인가? 계보의 중요성은 어떤 가족에게 주어진 혈통의 계열을 완전히 추적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세속적인 족보들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관심을 그런 것들에게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 {디도서 3:9.} 그러나 영적인 계보가 있으며, 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열 두 지파들을 본다, 열 두 가족들이, 144,000 명 가운데 있다. 각 가족이 12,000 명으로 계수 됨이 -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우리가 바로 이해한 것처럼 동등한 유업에 진상을 나타내고 있다. 마태복음 19장을 편다.

마태복음 19:28. “야쉬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갱생하여 (영문)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 갱생의 언어가 아주 중대하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 회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교회 멤버십이며; 경건에 속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갱생하여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 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20:1.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 십시 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 육시와 제 구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 십일시 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9절 “제 십일시 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 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온종일 별에서 수고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다.고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작은 예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른 아침 일꾼들을 유대 교회로 상징하였다. {실물교훈 40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유대 교회가 실족하고,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삼시경에 일꾼들이 사도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음녀로 바뀌었고, 바로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 조직이며, 또 육시에 일꾼들이 부르심 받은 것은 개혁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개혁 교회들이 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야의 말씀들을 계속하지 않았으므로, 음녀의 딸들이 되었다. 구시경에, SDA 교회가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나 SDA 교회가 바벨론과 형제와 같이 친밀하게 사귀어 범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결국 1988년에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을 하였다. 그러므로 십일시에 일꾼들이 남았다.

누가 열한 시 일꾼들인가? 144,000 명 교회다. - 남은 자들 또는 “마지막 부분”이며,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은, 144,000 명 교회가 남은 교회로써,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첫 열매”로 일컫는다. 이와 같이 글자 그대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 제사장이 바로 그의 혈통을 아론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또 메시아께서 다윗에 혈통이 분명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혈통을 틀림없이 보여 줄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이고, 또 야쉬와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다. 히브리서로 간다.

히브리서 11:8-10.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 야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약속한 땅에 기거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서 타국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그 날이 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초가 있는 도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야께서 건축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다. 역대상 9장을 펴자. 지금 그대가 그대의 영적인 안경을 다시 쓰고, 그대가 희망하는 어떤 것들을 보기 바란다.

이스라엘,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을 그대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숙고하고자 한다. 역대기상 9:1. -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니,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영문)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 되었다 - 오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 될 것이다. “...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니.” 내가 “계보”에 대한 단어를 본래 언어에서 찾아 보았더니 그 뜻이 “혈통에 의한 기록” 이었다.

혈통에 의하여 명부에 기록된 것이다. - 혈통이 무엇인지 그대가 아는가? 내가 “혈통”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개별적인, 또는 계통, 혈통으로써 섞인 것 없는 순수한 씨로 태어났으므로 신고된 것이다.” 그러므로 계보는 순수한 씨로 태어난 것을 기록하여 등록한 것이다. 야쉬와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고, 또 야쉬와의 믿음을 취한 자는 순수한 ‘씨’임이 틀림없다. “그들이 왕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어린양의 생명 책에, 왕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됨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비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권세를 가진 천사에 의하여 이 신비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름에 입각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등록되었다. 느헤미야 7장을 보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때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실재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 7:4-6절을 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성읍은 넓고 크나,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영문) 그 안에 백성들은 적고 집들은 [아직도] 지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성읍이 (도시) 큰 것을 그대가 알았는가? 새 예루살렘성에 크기에 대하여 연구해 본적이 있는가? 그것이 큰 장소였다. 그것이 “크고 광대하였으나: 그 안에 백성들은 소수였다.” 소수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야쉬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소수가 택함을 받았다. “집들은 [아직도] 지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영적인 집들이 현재 지어지고 있음을 그대가 아는가? 그들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현재 지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늘 안에 있는 - 도시에 살 수 있도록 지어지고 있다. 5절: “나의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 주사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시기에,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의 명부를 [또는 등록부] 찾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찾았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에 끌고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읍으로 왔는데, 그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사로잡힘에서 놓여 올라온 지방의 자손들이라.”

우리가 신비의 바벨론에 잡혀갔다. 우리가 혼동 속에 있었다. - 우리가 야의 사랑의 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집중하였다; 우리가 거룩한 분의 계획에 따르지 않았다.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관습 - 헛된 것을 경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왔고, 또 순서에 따라 바벨론에서 나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등록해야 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계보를 (족보) 갖게 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혈통이 그리스도께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린양의 생명 책이다 - 그 기록이 이 비유에 적용된다.’고 한다. 그렇다, 하늘에 기록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연구한 것을 기억하라 - 두 증서들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6:10.}

느헤미야 7:61-64. 그 당시 그곳에서, 물론 망명자들의 목록을 우리가 본다. 61절 “이들이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그룹과, 앳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들이나, 이들은 그들 조상의 집과, 그들의 씨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증거할 수 없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그들이 증명할 수 없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이 계보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토비아 자손과, 느코다 자손으로 육백 사십이 명이더라.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코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인 바르실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들이 계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명부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져 [다루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들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혈통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보에 속해 있지 않았다. 만일 오늘 그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체포당하였다면, 그대를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그 질문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 교회 멤버십 역할이 공언하는 그대의 믿음을 지적하고, 또 그대의 서약이 야의 이기는 자들, 영적인 가족과 연합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다. 출애굽기 19:6. 여기에서 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또는 거룩한 가족]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비슷한 진술을 우리가 본다. 베드로전서 2:5,9,10. “너희도 산 돌들로써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내가 바로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의 영적인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적합한 존재로, 모양 지어져서, 형성된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야쉬와 메시아로 인하여 야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리고 9,10절.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그 단어 “세대”는 “계보”와 같은 의미로써; 그 단어들이 같은 뿌리다. {그릭 : *genos*}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계보]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또는 가족], 그에게 속한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야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계보이다. 만일 그대의 이름이 계보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대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144,000명 가족들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으면, 만일 그대가 지파들 중 하나에 속하지 않았으면, 만일 그대의 이름이 그곳에 봉인되지 (인침) 않았으면, 그 족보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그대는 도시의 대문들을 통과하여 갈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에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본다. 여호수아 24:14. “이제 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야를 섬기라. 만일 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중 되었던 집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우리의 야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 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심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는 거룩한 야시오, 그는 질투하는 전능하신 분이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행하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야** 전능하신 분에게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야** 우리 전능하신 분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켄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야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세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친애하는 자들이여 지금 이것을 주의하여 들으시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전능하신 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게 하니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니라.”

교회 멤버십의 언약이 그 돌과 같이 서 있고, 그것이 기억의 돌이고, 기록된 증인이며, 사실 야의 계획대로 그분의 영적인 가족으로 그대가 봉인하고 그대가 고정시켜서 소유한 것이다. 누가복음 19:37-40. “야쉬와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 왔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야께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야쉬와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야쉬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를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만일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기억의 돌이, 우리 교회 멤버십 언약이, 증인으로써 소리를 질러 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느헤미야 9장이 - 언약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느헤미야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읽고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도시의 성벽들을 재건할 때가, 땅에서 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9:2.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리라, 그들이 회개하여야 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했다; 그들이 모든 사악함을 회개하고 모든 이방 신을 포기하여야 했다. 그런 다음 그 장에 나머지를 우리가 읽으면 사실상 비탄의 소리이다. 느헤미야 9:38.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인을 [바꾸어 말하여서, 그것에 싸인] 쳤더라. 그 다음 10:1. “인을 친 [또는 싸인] 사람들은 하칼라의 아들 털사다인, 느헤미야, 시키야 또는 주지사], 그 다음에 그곳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확실한 언약에 완전히 인치고, 또는 싸인하였다.”

28절 “또 나머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인들,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야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즉 지식을 가진 자와 명철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의 형제들과 귀족들에게 결합하여..,” 그곳에 있는 연합을 그대가 보는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과 결합하였다; 29절 “그들 형제들과 결합하여 저주 안으로 또 맹세 안으로 들어갔으니, 곧 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율법대로 행하고, 전능하신 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

확실한 언약이 그것과 일치함을 내가 읽는다.

하늘에 있는 야의 교회와, 영의 연합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서명하여,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들로 인친 자들이며,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메시야의 몸된 멤버들로서 우리 자신들이 함께 결합하여 창조 SDA 교회를 증명하며, 야와 그분의 아들 야쉬와의 믿음과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언약이고,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야는 우리의 의이다.” (에레미야 23:6, 33:16.)

그런 다음에 이름들이, 계수 되고 또 인침이,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나옴에 따라서 - 계수 되고 또 지정된 - 계보에 따라서, 그들이 확실한 언약을 만들고 또 그 언약에 그들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도 같은 것을 행한다. 이것이 확실한 언약인가? 그렇다. 그것이 확실한 언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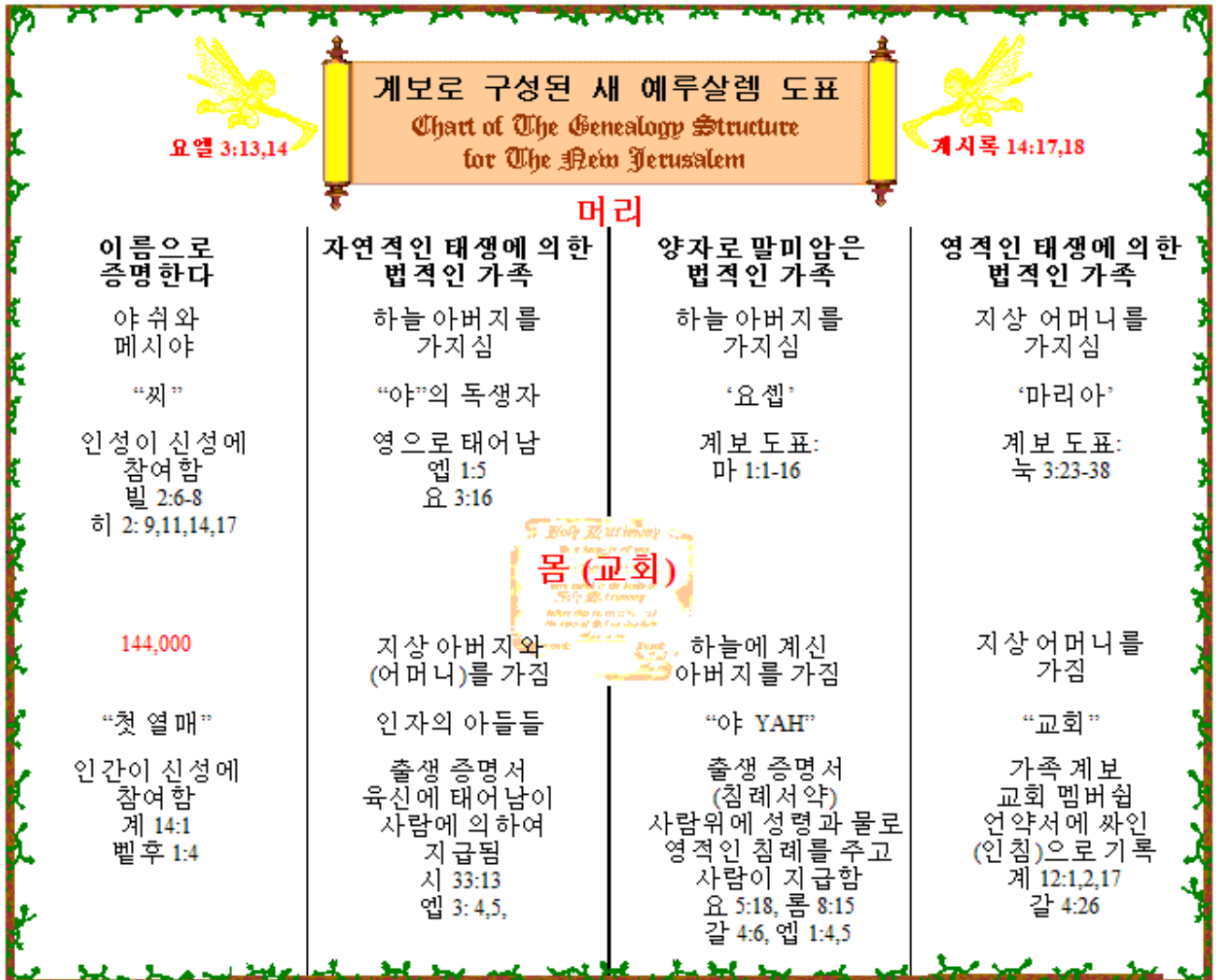
큰 계명들 돌을 우리가 마태복음 22:36-40절에서 읽는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야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3:34,35. 야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되풀이 한 것이다. {레위기 19:18.} 그 단어 “새로운”을 해석하면 “다시 시작하다.” 내가 다시 시작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새로 시작한 계명을 주노라: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그대의 교회 멤버쉽 언약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대가 자진하여 그대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완전한 연합과 일치로 함께 언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시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침례 서약이 야께 드리는 약속이며 실증이다. 교회 멤버쉽 언약이 야의 인간 가족과 함께 우리가 연결됨을 증거하므로, 지금 말한 것처럼 큰 두 계명들을 글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인침으로, 또는 신청서에 “싸인”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법에 영이, 우리의 매일 생애에서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의 침례 서약과 교회 멤버쉽 언약, 이 두 증서들이, 두 계보를 (족보) 상징하며 (또는 세워져 있다), 성경말씀에서 기록된 두 계보들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가진 것과 같다. 하나는 마태복음 1:1-16절에 있다.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3:23-38절에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다 읽지 않지만, 마태복음 1:1-16절에 있는 이 계보는 법적인 양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을 제공한다.

더할 나위 없이, 침례 서약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양자된 법적인 계보이며, 우리의 “선천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야의 영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다. {갈라디아서 4:5.} 누가복음 3:23-3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연적인 혈통을 통하여 태생하신 기록이다. 교회 멤버쉽 명부에 기록들은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혈통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적인 가족의 상태가 되어, 우리가 가족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잔존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이사야 66장에서 읽는다.

이사야 66: 22. “야께서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같이 너희 씨와 [또는 자손들]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씨와 그대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대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 책에 남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역시 그대가 새로 태어난 가족 계보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계보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시간을 들여서 도표로 설명하여 주기 원한다. 이것이 지금 막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상세한 설명서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 참여하였다. 144,000 명이 그분의 마지막 남은 교회이며, 첫 열매들이다. 우리는 씨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다. 우리가 인성으로써 신성에 참여한 바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야쉬와를 말한다, 빌립보서 2:6-8. “그는 야의 형체로 계시므로 야와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신성이 인성에 동참한 것이다.

히브리서 2:9-11.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야쉬와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또는 완성] 하신 것은 당연하다.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여진]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야쉬와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 인성이 신성에 동참한다. 베드로후서 1:4절이 그것을 더 분명히 증명한다.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야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야쉬와께서 씨가 되시고; 144,000 명이 첫 열매들이다. 야쉬와께서: 신성이 인성에 참여하시고; 144,000 명이 첫 열매들으로써; 인성이 신성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과 자매들로 여기신다. 지금 계보들로 관련지을 때, 우리가 “본래 가족”이다. - 우리가 본래 가족에 기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본래 신의 섭리에 의한 법적인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본래 가족 - 그분이 하늘로부터 곧바로 오셨고, 그분이 야로부터 오셨다; 그분이

야의 독생자로서, 하늘로부터 곧바로 오셨다. 우리의 본래 가족 - 우리가 인자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인자의 아들들이다; 그분이 지구인들인 우리를 가족으로 증거하셨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출생 증명서를 갖게 될 때 이것을 그대는 아는가? 우리 인간들을 그분이 가족으로 보증하셨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본래 가족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된 가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의 계보로 들어 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가족이 마태복음 1:1-16절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분의 지상에 아버지가 요셉이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된 가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다. 요한일서 5:18. “야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야께로부터 내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억제하다]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6. -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의 침례 선서가 선택된 우리의 가족 계보를 증명한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의 가족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성경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야쉬와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누가복음 3:23-38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상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따른다. 우리도 역시 지상에서 본래 가족을 가지고 있다 - 영적인 본래 가족이다. 계시록 12:1,2절에서 본 여자가 우리의 어머니이며 그녀에 의하여 우리가 태어났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또는 열 두 돌들]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밴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대가 이해한 것처럼, 지상에 있는 영적인 우리 가족 안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므로 이 여자를 정결한 교회로 나타낸다. 갈라디아서 4:26절이 그것을 한층 더 뚜렷하게 추가하여 말한다.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야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리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며, 자유롭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교회 멤버십 언약서가 영적인 가족 안에서 “본래 가족”이며 우리 계보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야쉬와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으로써 두 계보들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계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침례 선서를 가졌고, 또 우리가 교회 멤버십 명부를 가지고 있다. 이것 둘 다 새 예루살렘 멤버십의 계보를 구성한다. 만일 그대의 이름이 이 멤버십 명부에 없으면, 그대는 도시의 대문들을 들어 갈 수 없다.

사도행전 10:34-36.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가족]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라. 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야쉬와 메시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의 주시라.)’ 바뀌 말하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고; 야께서 그 자손들을 받아들였다. 사도행전 10:47,48.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 (야쉬와)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리고 11장 1-4.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또는 유대인들]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는 이방인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차례대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그가 모든 내력을 말하였다.

17절 “그러므로 야께서 주 야쉬와 메시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야를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조용해지더라. 그리고 야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야께서 정녕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자녀들이 가족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그 자녀들이 야에 의하여 먼저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그들 가족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가장 믿을 만한 친교를 갖는” 것에 대하여 그대가 일찍이 들어 본적이 있는가?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교를 교환해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여태까지 그대가 들어 본적이 있는가? 그것이 승인할 만한 몸 (교회) 이다. 먼저 그들이 야에 의하여 승인 받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의하여 승인 받는다.

사도행전 2:46,47.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완전히 연합하였다.]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야를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주께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주께서 승인하실 때, 야께서 사람을 승인하고, 구원하실 때, 그분이 그분 교회에 그들을 더하신다. 이 마지막 날에, 144,000 명이 교회 멤버십 언약서에 등록하여 나타내고, 또 “인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개심하여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교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사도행전 9:17,18.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야쉬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바울이 된 사울도, 그곳에 온 것은 교회 멤버십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9:26-28절을 보시오.}

끝내는 성경말씀, 히브리서 12:18-25. “너희가 이른 곳은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인 산이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던질 것이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것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몹시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야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야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야쉬와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어린양의 생명책에 의하여 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야의 가족으로 등록함을 통하여 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도시에 대문들을 통과할 여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그들 자신들의 책임으로 연결시키기를 택하는 그들이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를 신뢰하였다, 이것을 주께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신다.” Ellen G. White, Letter 164, 1909. 친애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시온 산에 왔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왔다. - 새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와, 그대가, 야의 뜻에 완전히 조화 일치하기 위하여 그분께 갈 수 있는가? 심판 날에 그대가 계보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대가 계보에서 발견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큰 빛으로 축복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을 수 십년 동안 각종 교회들에게 실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침례 선서들과 우리의 교회 멤버십 언약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입각한 합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하여 대단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동여매었사오니 우리가 ‘글자 그대로의 법’과 ‘영적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유업에 증서에서 증인으로 모두들이 볼 수 있도록 계보에 기록되었어야 함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야쉬와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을 축복하소서. 그분의 형제와 자매들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인간으로써 신성에 참가하도록 하셨으니 축복하소서. 그리고 야쉬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의 귀중한 이름으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7장: 두 번째 이브 - 2001년 6월 16일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교회 멤버십 7장으로 참작할 것이다. 우리가 “두번째 이브”를 주제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저녁이나 아침과 같은 이브가 아니고, 여자인 이브다.

게시판 위에 내가 기록한: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이브,” “두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이브”가 있다. 창세기 2:7. “야 전능하신 분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건너뛰어서 15-24절 “야 전능하신 분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야 전능하신 분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야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또는, 그에게 내가 적절한 반려자를 만들어 주리라] 하시며 야 전능하신 분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의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등등.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에 이름을 지어 주었다. 등등.

그 다음 21절 “야 전능하신 분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야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야 전능하신 분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또는 아내]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또는 그의 여자]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다수에 남편들과 아내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창조 시에 야의 의도는 한 남편과 한 아내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된 결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19:4-6절에서 말씀하셨다. “야쉬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야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45.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이것이 창세기 2:7절에서 온 것이다.] 살아 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또는 생명을-주는]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아담을 소유하고 있으며, 역시 두 번째 아담을 그리스도로 언급하였다. 첫 번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고; 두 번째 아담이 살아 있는 영으로써, 생명을 주는-영이다. 아담과 이브가 야 자신에 의하여 결혼하였으며, 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브를 좀 연구하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11: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야에게서] 나느니라.”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그런 다음에, 여자로부터 남자가 나왔다. 성경에서 그대가 “여자”에 단어를 읽으면, 그것이 참으로 “아내”와 같은 언어이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다. 성경 전체에서 아내와 여자는 바꾸거나 교체되었다.

창세기 3:20절이 이것을 말한다; 첫 번째 여자에 관한 것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또는 여자]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미였음이라.” 실제로, “이브”의 뜻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브는 모든 인류에 존재들 -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미다. 지금 바울의 기록들을 본다. 디모데전서 2:14. “아담이 속지 않았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이며.” 그리고 그대가 기억하는 것은 야께서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하여 야께서 지시하였을 때, 그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고, 또 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이브는 그때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브가 지어지기 전에 무엇을 먹어도 좋고 무엇을 먹어서는 좋지 않을 것에 관한 지시를 아담에게 하신 것이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가 지음을 받았다.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첫 번째 이브가 속은 것은,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이 그녀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먹어서는 안됨에 관하여 지시하였으나, 이브가 그녀의 남편을 의심하였고, 그녀의 남편에게 의혹을 가졌으므로, 그 의무를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 - 남자의 지시를 신뢰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이 결혼에 관한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를 통하여 그것들을 적용하여 왔다. 출애굽기 34:10-17절을 본다.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아직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무서운 것이니라.’ “무서운”에 뜻은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야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받도록 행하실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카나안인과 헷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울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하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면 너는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 너는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7:1-7. “야 너의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인 헷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야 너의 전능하신 분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 시키고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그들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요, 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결혼의 규칙은: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백성들과 결혼해야 한다. 그대는 야의 가족 밖에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법이 최초부터 인간 가족에게 적용되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을 조금 본다. 야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분이 적합한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 준비하여 그가 아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야쉬와, 아버지의 독생자가, 땅에 보내어져서 인간이 되었다. 그분이 인간으로써 하늘에 올라 가셨으며, 또 그분이 여전히 인간이다. 그분이 여자의 육신에 참여하였고 - 그분이 동정녀에 의하여 잉태하였으며 인간의 육신에서 태어났다.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이브가, 남자의 육신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아담이 여자의 육신으로부터 왔고, 또 인간 야쉬와께서 하늘로 올라 가셨다 - 그러나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교회여, 내 말을 이해하는가?

야쉬와께서는 아내 없이 하늘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그 아내를 위하여 고가의 값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 것을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그대가 본다. 야쉬와께서 그분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귀중하고, 순결한 피와; 그분의 참된 생명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5:25.} 그녀가 그분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이 오면 그분이 두 번째 이브를 그분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야쉬와께서 인간으로써, 영원히 혼자 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적합한 반려자와 영원을 통하여 함께하실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에게 아내를 갖도록 하였던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5:45절 말씀에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임을 보았다. 고린도전서 11:12절을 다시 본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이 여자로부터 나왔다. 계시록 12:13절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는 계시록 12:1절에 있는 여자다 -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뱀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녀가 두 번째 이브이며, 남자 - 아이를 가졌으므로; 출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이 재미있다; 여기에서 어떤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사실, 두 번째 이브가 그녀의 남편이 될 아이를 낳는다. 우리가 잠시동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분을 신랑이라고 일컫는다. 사실,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 이것이 완전히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원래 첫 번째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하였다. 두 번째 이브가 그녀의 남편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영적인 것들 안에서, 때로는 그것들이 거꾸로 된다. 영적인 면으로, 그대가 하늘에 가기 위하여 그대가 내려가야 한다. 육신적인 면으로, 그대가 일어나야 하고,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순서에 따라 올라가기 위하여 그대가 내려가야 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풍자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함축성이 있는 다른 점들이 있다. 요한복음 3:29.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야쉬와께서 신랑임을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다. 침례 요한이 “신랑 들러리”이고, 신랑 친구이다. 야쉬와 자신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마태복음 9:15절이 설명한다. 마태복음 9:15. “신혼 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 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이 신랑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다른 구절들 몇몇을 볼 수 있다. 이사야 62:5절에서, 이 결혼에 대한 각본을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 62:5.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네 전능하신 분 [야]께서 너를 기뻐하리라.” 야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위하여 창녀를 선택하시리라고 그대가 생각하는가?

부모들이 관습적으로 그들의 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여자를 선택한 것을 그대가 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창녀를 선택하시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대에게 질문한다 - 그분이 한 여자 보다도 더 많은 여자를 선택하시겠는가? 아니다. 그분이 순수한 동정녀; 순결한 동정녀를 선택하시고, 또 그분이 오직 한 여자만 선택하셨다. 그녀가 순결하고, 그녀가 연합하였으며, 그녀의 멤버들이 연합하였다. {고린도전서 1:10. 에베소서 4:5. 고린도전서 12:21.}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가르친다: 죄를 승리함과, 또 이 세상의 왕들과 연합하는 불법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잔존하는, 이 여자가 그녀이다.

야께서 함께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이것을 오직 야께서 결합시켜 주셨으므로 아무도 갈라 놓을 수 없다.

야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위하여 적절한 신부를 선택하신, 그녀가 두 번째 이브이고, 교회다. - 참된 교회다. 오늘 눈에 보이는 신부가 있다. 지금, 그녀가 그녀 자신을 아직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 호제야 2:19,20.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네가 야를 알게 되리라.” 지금 ‘정혼’에 단어가 우리 시대에서, ‘약혼’의 뜻이 된다. 우리 세대는 약혼을 적당하게 처리한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인, 정혼은 결혼과 같이 묶어진다; 결혼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이 성교의 행위를 통하여 아직도 한 몸이 되지 않았으나, 그들을 남편과 아내처럼 중히 여겼다. 그 서약을 무효로 할 것이면 이혼 증서를 필요로 하였다. 요셉이, 이미 그녀의 남편으로 배려된 것을 그대가 기억하는가. {마태복음 1:19.} 그가 “마리아를 은밀히 단절하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동정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단절 하려고”의 문구가 공식적인 이혼 행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천사가 지시한 것은 그녀가 야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였다고 하였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에서, 부정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야께서 항상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들이 동정녀를 취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그들이 동정이 아님이 발견되면, 그들이 법적으로 그들을 버릴 수 있었다. 야께서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동정녀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무엇이 동정녀인가? 동정녀는 육신이 관통되지 않은 자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그대가 듣는다. “오. 그것은 오직 육신의 죄다.” 또는 다른 자들이 “육신적인 기독교인들” 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가 듣는다. 그 뜻은 “육체적인” 기독교인들이다.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육체적인 기독교인들, 그것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양의 아내, 동정녀이다. 그녀는 육신이 관통되지 않았다. 그 뜻은 그녀가 육신적으로 어떤 죄들에도 가책이 없고, 또 육신의 욕망이 없다. 그녀는 간음죄의 가책과, 세상과 음행한 가책이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브를 좀 더 엄밀히 보자. 그녀, 첫 번째 이브는, 살아 있는 자들의 어머니다. 그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성경이 말한다 - 그대가 다시 태어나면 그대가 두 번째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다. “목사님,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대가 말할 것이다. 그대가 영으로 태어났고, 또 그 영이 여자에게 있으므로, 잉태한 아이가, 남자 아이 야쉬와사다. 우리가 야쉬와의 씨를 취할 때, 우리가 여자의 씨를 취하는 것이다. - 두 번째 이브. 계시록 12:17절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었다. 그녀는 순결한 여자고, 그녀가 그 남자아이와 함께 한다. 첫 번째 이브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것처럼, 그녀가 살아 있는 자들의 어머니다.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로 설명한다. 에베소서 5:22-27. “아내들아, 너희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야쉬와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야쉬와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야쉬와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하라.” 그것이 그가 아내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이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케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에서 흠에 대한 말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관통되어 온 것이다. 그대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자의 동정을 어떻게 테스트하여 보았는지 그대가 알 수 있다. {신명기 22:13-21.} 피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야쉬와의 의도는 육신이 관통되지 않고, 흠이 없는 것이 증명된 - 한 여자, 한 교회, 한 아내, 한 동정녀를 그분 자신에게 제시하고자 하신다. 에베소서 5:28-33.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 [야쉬와]께서 교회에게 하심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2:27. -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특별한 (영문) 그 지체들이라.” 그대들이 두 번째 이브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둘, 하나님인신-사람과 신격화 된-여자가, 한 “영”이 된다. 고린도전서 12:13,14.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결혼이 바로 그곳에 있다.]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한 몸,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그렇다, 많은 멤버들이 있으나, 한 몸이며, 한 영이다. 마태복음 24:24절이 두 번째 이브와 첫 번째 이브 사이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성경이 말하기를 첫 번째 이브가 속았고 또 죄 안으로 떨어졌으나, 두 번째 이브는 속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계시록 14:4절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이브에 관하여 좀 더 설명하여 준다. 계시록14: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이 음녀나 음녀의-딸들과 같은 아내들이 되어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동정녀들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야와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동정녀들이고, 또 법으로 관련된 동정녀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것이다. 신약 성경에 있는 결혼 법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로마서 7장을 -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본다.

로마서 7:1-4. “형제들아, (내가 율법으로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야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옛 사람이 죽었을 때, 옛 사람 자신과 이기심이 죽고 매장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다른 자와 결혼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침례가 결혼 서약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침례 언약서와 또 교회 언약서에 싸인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침으로 고정된 결혼이 된다. 사실상, 그것이 결혼 증명서이다. 여자가 남자의 이름을 취함이 어디에서 온 관습인가? 메어리, 그대가 그대 남편 이름을 취하였다. 닥트 자매, 그대도 그대 남편의 이름을 취하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 이름을 취하였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이 히브리 결혼 관습이다. - 그대가 그대 남편의 이름을 취하였다. {이사야 4:1.}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 많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 그리고 여자가 그들 가족의 일부분이 되므로, 그들 가족의 이름을 (성) 취한다.

두 번째 이브가 남편의 이름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이름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이름이 야께서 그녀에게 준 것이어야 한다. 그분 백성들의 이름. 지금 오직 한 이브가 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말라, 오직 한 이브가 있다. 그 이브를 일컬어서 “침례교회”, 또는 그 이브를 일컬어서 “감리교회”, 또는 그 이브를 일컬어서 “장로교회”, 또는 그 이브를 일컬어서 “역사상 SDA 교회” 또는 그 이브를 일컬어서 “1922년에 창설된 SDA를 믿는 자들의 교회”들도 아니다. 한 이브가 있고, 한 몸이 있으며, 한 영이 있다. 그리고 야께서 그분의 신부에게 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창조 SDA -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교회이고, 그 여자를 야께서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하늘의 권력 아래에서 내가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가 점이 없고 또 흠 없는 동정이어야 하고; 그녀는 정결하여야 한다. 오늘 그녀가 육신에 관통이 없을 것이고, 또 이 세상 도처에 있는 “창조 SDA 교회”가 그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동정녀들이므로, 결혼 증명서에 그들의 인이 고정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적은 수가 택함 받았다. 신랑이 오실 준비를 하시고 - 신부는 그녀자신을 갖추어 준비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6:15-17.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야께서 금하시니라. (영문)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야쉬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형제

자매들이여, 인터넷으로 듣는 자들이여, 이 태입들과 이 설교들을 듣는 모든 자들이여, 내가 하늘에 계신 야의 권위에 의하여 이것을 말한다, 이 세대에서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는 야쉬와와 정당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 신부에게 가입하라. 동정녀들에게 가입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지혜 있는 동정녀들에게 가입하라. 결혼 신청을 하라; 그대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인을 치라. 인침을 완료할 때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6:14.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야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그분이 바로 여기 다음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야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전능하신 분의 성전임이라. 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전능한 자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야께서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야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야를 두려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 이 주제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계시록 17:5-7절에 어미가 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 모든 여자, 모든 아내가 그들의 남편을 따라서 받은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야쉬와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그릭: 기이하여}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짐승과 같이 누우면 가증한 것임을 그대가 아는가? 출애굽기 22:19절이 말하는 것은 만일 그대가 짐승과 누우면, 그대는 죽음에 해당된다. 레위기 18:23.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혼란이라.” (영문) 이것이 바벨론에 혼란이다.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으므로, 완전히 혼란이다. 땅에서 완전히 가증한 것들이다. 누가 음녀들의 어미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 조직이 음녀들의 어미로 상징한다. 그녀가 짐승 또는 이 세상 왕국과 함께- 드러눕고 언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니엘 7:17,23.} 두 번째 이브는 살아 있는 자들의 어머니다. 누가 음녀의 딸들인가? 음녀의 딸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이다, 그리고 그 개신교회들이 빛 안에서 계속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다.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도 그것을 문제삼을 것 없이, 그들이 언약을 깨었다. 그들이 음녀의 딸들이므로, 또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그들이 동정녀 아내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

그대는 그러한 딸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대가 그 음녀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누가 음녀의 자매인가? 음녀의 자매는. SDA 교회 대총회이고 또 딸들이 있다. {1}. 지금, 역사적인 SDA 교회를 고려할 때, 이러 이러한 믿는 자들에 의하여 그 누가 이러 이러한 해에 창설하였다,고 하는 그들이 음녀 자매의 딸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들에게서도 나와야 한다. 그 혼란에서 나오라. 그 짐승을 위하여 드러눕지 말라. - 그 두 뿔 가진 짐승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대의 양심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압적인 시도를 할 것이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역사적인 재림교회는 그들의 이름에 관하여 또 그들의 종교에 관하여, 짐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도록 하며; 그들이 경배 드리는 것처럼 절하므로, 그 두-뿔 가진 짐승이 실제로 SDA 대총회가 타고 있는 짐승이다. 그러나 그대는 동정녀가 되어야 하므로, 짐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육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을 신뢰하므로, 결혼식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마태복음 19:8.9. -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고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창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분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동정녀와 결혼할 것인데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분이 음녀들의 어미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음녀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음녀의 자매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분이 자매 음녀의 딸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야쉬와의 아내는 두 번째 이브이고, 메시아의 몸이며,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계시록 19:6-10.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야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야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야쉬와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중이니 야께 경배하라. 이는 야쉬와의 증거가 예언의 영임이니라.’고 하더라.”

계시록 22:17.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내 백성이여, 그녀에게서 나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친애하는 자들이여, 오라.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오라, 그리하면 그대가 그 생명수를 마시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부와 합류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본향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결혼에 상징적인 의미와, 또 그 안에 신성한 구성 요소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결한 동정녀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아들의 아내로 선택하시고, 또 그분이 곧 그녀의 집에 오셔서 그녀를 에스코트하여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많은 대 저택들이 있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 그분자신이 다시 오셔서 그녀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음녀 또는 음녀의 딸, 음녀의 자매 또는 음녀의 자매의 딸들을 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결한 동정녀를 선택하셨고, 그들이 야쉬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들을 행하여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이 장소에서 우리를 해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신부와 합류하도록 하여주소서. 야쉬와의 거룩하고 귀중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 1 } See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E.G. White, page 380, and Appendix C and the end of this Book

확실한 언약 - A SURE COVENANT

(교회 멤버십: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부록

부록 A : 회복된 것들

Appendix 부록 A 1: 신격

거룩한 이름들 - The Sacred Names: <http://csda.us/binary/essays/ename.html>

삼위일체 교리: 여기에서 성경구절들과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알고 있었던 신격(Godhead)에 대하여 창조 SDA가 조사 검토한 것이다.

<http://csda.us/binary/essays/etrinity.html>

<http://csda.us/binary/essays/ePioneer.html>

Appendix 부록 A 2: 방언들을 말합

성경상 연구: <http://csda.us/binary/essays/etongues.html>

역사적인 연구: <http://csda.us/binary/essays/etongues2.html>

Appendix 부록 A 3: 새 달 - New Moon

새달에 대한 교리 연구를 여기에서 읽는다:

<http://csda.us/binary/essays/emoon.html>

Appendix 부록 A 4: 승리

죄를 승리하는 복음 연구를 여기에서 찾는다.:

승리 - The victory: <http://csda.us/binary/essays/evictory.html>

룻 - Ruth : <http://csda.us/binary/essays/eruth.html>

창조와 진화론 - Creation vs. Evolution : <http://csda.us/binary/essays/ekrevevo.html>

두 사울 - The Two Pauls: <http://csda.us/binary/essays/erom.html>

폭풍과 왕권 - Whirlwind and Scepter: <http://csda.us/binary/essays/ewhirl.html>

Appendix 부록 B: 전쟁의 책들

대 쟁투가 계속하고 있는 기록:

하늘 전쟁 - The Emyrean War : <http://csda.us/binary/books/Gate1/Ewar.html>

홍수 이전 전쟁 - The Antidiluvian War: <http://csda.us/binary/books/Gate2/Awar.html>

쉬나릭 전쟁 - The Shinaric War: <http://csda.us/binary/books/Gate3/Swar.html>

Appendix 부록 C: 음녀의 자매임을 입증 -

음녀의 자매에 관하여 정보를 준비한 연구가 다음과 같다:

표와 인침 - The Mark and The Seal: <http://www.csda.us/binary/essays/emark.html>

8번째 메모 - The 8th Note : <http://www.csda.us/binary/essays/enote.html>

다섯 탑들 - The Five Towers : <http://www.csda.us/binary/essays/eTowers.html>
어홀리바의 숙명 - The Fate of Aholibah: <http://www.csda.us/binary/essays/efate.html>
타락함이 나타나다. - Appearing to Fall : <http://www.csda.us/binary/essays/eChurchfall.html>

번역자의 말: 이 말씀들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번역되는 대로 계속 추가할
것입니다. 한국어 인터넷: www.csda-korea.org 영어 인터넷: www.csda.us